

2025년 여름호 vol.179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2025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자 강유순·이종민 동창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2025 이화 창립 139주년 감사찬양예배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 여성들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스크랜튼 선교사에게 선한 소원을 주셔서 모교 이화를 시작하시고
나눔의 손길을 통해 이화가 139세가 되고 동창회가 117세가 되기까지
주님의 날개 밑에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소망 중 인내하며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신실한 스승님들과 선배님들을 보내 주시고
섬김의 손길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잇대어 가도록 지금까지
주님 안에 품어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 시절 이화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도록 은총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영역에서 정직한 리더십으로 부르심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화가 한 명의 학생을 통해 26만여 명의 동창들로 장성하기까지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화를 사랑하시는 이의 헤아릴 수 없는 은덕으로 인해
이화 동창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극히 작은 일에 겸손히 충성하고
선한 이웃으로서의 삶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기까지
주님의 삶을 구현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여상히,
당신께서 신뢰하시는 이화의 동창들로 말미암아
모교 이화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늘 하나 되게 하시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아가 6:10)
서로의 모습을 비추어 가면서 주님의 자랑으로 천대, 만대 구원의 기쁨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교 이화와 26만여 동창들을 잠잠히 사랑하심으로 인해
이화를 즐거이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영학관의 여름'(2023)

1936년 신촌 캠퍼스에 지어진 초기 건물 중 하나인 영학관은 이화전문 문과의 졸업반 학생들이 서양예법, 생활영어, 친목과 사교를 익히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현재는 아시아 여성학센터가 사용하고 있다.

편집위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곽은이(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화 84, 총동창회 총무)
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최정은(커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5년 7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5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표2 이화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2025 이화 창립 139주년 감사찬양예배 기도문

02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사회 곳곳에서 '섬기는 리더십' 구현하는 이화가 되길

09 총창 취임 축하연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 실현할 것"

10 영원한 이화인

이시라 동창 등 25인

12 올해의 이화인

조숙자 동창 등 39인

14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섬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는 은혜의 기회

16 동창이 펴낸 새 책

『이화 영어영문학과 100년』 외

17 빛나는 이화인 / 캐나다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 강유순 동창

희망의 공동체를 일구며 '함께 사는 사회'의
가치를 실천하다

20 빛나는 이화인 / 이주 여성과 취약계층 위해 헌신한 의사 이종민 동창

3만 이화등이 '대모'의 경계 없는 사랑

24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

동창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선을 함께 모색하다

28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 시카고예술대학 총장 이지선 동창

예술과 리더십으로 세계를 이으며 국제무대에 우뚝 서다

32 총동창회 소식

김영주 고문 연임, '동창의 날' 행사 논의 외

37 모교 소식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식 개최 외

40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44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58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63 동창 근황 장성숙(약학 61) 동창 외



02



09



10



12



14



17



24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사회 곳곳에서 '섬기는 리더십' 구현하는 이화가 되길



이화 창립 139주년을 기념하는 '동창의 날' 행사가 5월 30일(금)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뒤덮인 오월의 교정은 국내외 각지에서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동창들의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꾸며졌다. 1부와 2부에서는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을 비롯해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졸업 50주년 및 30주년을 맞은 동창들의 재상봉 행사가 마련되었고, 3부에서는 유쾌한 합창제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이향숙 총장, 김선옥·김혜숙 전 총장, 조종남 전 총동창회장, 이정숙·김영주·남상택 총동창회 고문 등 내빈이 참석

했고, 졸업 50주년(1975년 졸업)과 30주년(1995년 졸업) 재상봉 동창 및 모교를 찾은 동창들과 이화가족 2,0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2025년은 이화여자전문학교로 독립 개편된 100주년의 해

김경령(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1부의 막이 오르고, 곧이어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들이 입장했다. 이들이 대강당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으로 행진하는 동안 오르간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진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장엄함을 더했고, 동창과 가족들의 뜨거운 축하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형숙 총장

곧이어 정자영(성악 93) 동창의 선창과 박소현(종음 99) 교수의 반주에 맞춰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과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축하 기도가 이어졌다. 조 선교부장은 “이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빛과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한다”고 기도드렸다.

다음으로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2025년은 이화 창립 139주년, 총동창회 117주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이화의 교육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인용해 “이화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회 곳곳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은 이화됨에 감사하고 창립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라며, 졸업 50주년과 30주년 동창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화와 총동창회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를 당부했다.

강유순·이종민 동창 ‘빛나는 이화인’ 상 받아

이어서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화 창립 130주년인 2016년에 제정돼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 상의 올해 수상자는 강유순(약학 69, 캐나다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이종민(의학 80, 천안 소재 이화병원 대표원장) 동창이다. 강 동창은 밴쿠버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원, 노인요양시설 조

성, 장학사업 등을 통해 헌신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 그는 “이화에서 배운 자긍심이 삶의 원동력이었으며,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모두와 함께한 결과”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주 여성과 해외의료봉사 활동에 힘써온 이종민 동창은, “이화 의대 선택이 자립심을 키운 전환점이었다”며, 후배들도 “고통을 두려워 말고 이화를 발판 삼아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순금으로 만든 마크와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다음으로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 증서 및 기념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대표인 이인숙(종음 75, ‘영원한 이화인’) 동창과 강승애(체육 95, ‘올해의 이화인’) 동창에게 추대 증서와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졸업 50주년과 졸업 30주년을 맞은 재상봉 동창 대표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졸업 50주년 대표 곽은희(서양 75) 동창은 “이화 동창들이 통찰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여성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소망한다”며 “특히 총동창회는 우리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이자 플랫폼으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이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졸업 30주년 대표 김보경(제약 95) 동창은 “이화에서 보낸 시간은 사랑과 섬김, 도전과 실천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고 동창들이 각 분야의 리더로 성장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어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강유순·이종민 동창(사진 왼쪽부터)





‘영원한 이화인’ 대표 이인숙 동창

‘올해의 이화인’ 대표 강승애 동창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화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

이어서 이향숙 제18대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하며 창립 139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포된 비전과 전략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총장은 먼저 “139년 전 단 한 명의 여학생으로 시작된 이화는 시대의 제약과 편견을 넘어서며 수많은 여성 리더를 배출해 왔고, 그 도전의 발자취는 곧 이화의 역사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낸 자랑스러운 기록”이라고 이화 139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해 2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라는 비전을 선포했다”고 알렸다.

이를 위한 혁신 전략으로 “초 학제적 융복합 연구를 위해 융합혁신연구원 신설 및 교내 연구소 구조 조정을 추진했으며, 전 학부생 대상 AI 기초교육 및 ‘AI For All Ewha’ 프로그램으로 AI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AI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역량과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전략실 신설과 대외평판도 TF를 통해 이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실천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화글로벌

별 사회공헌원 설립으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총장은 제14회 변호사 시험에서 모교 법전원 졸업생이 수석 합격한 것과, 의료 분야에서 이대목동병원이 2025년 ‘1기 인증 연구 중심병원’에 선정되었음을 알리며 139년 이화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되새겼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는 동창들의 기도와 응원, 헌신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며, 다가올 140주년에도 변함없는 동창들의 사랑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마무리했다.

1부 마지막 순서는 신학대학원 합창단 ‘이음콰이어’(단장:최영신(신대원 12), 지휘:조경순(신대원 25), 반주:여진아(신대원 13))의 찬조 공연으로, 〈태초에〉라는 합창을 선보였다.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으로 꾸며진 2부는 김구슬(법대·법전원 93) 재정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대강당이 환호의 함성으로 가득 찬 가운데, 사회자가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을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선후배 동창과 가족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축하했다. ‘영원한 이화인’은 총 25명이 추대되었는데, 지난해 작고한 고 이숙희(제약 75) 동창이 동기들의 추대로 선

50주년 대표 박은희 동창

30주년 대표 김보경 동창



정되어 '영원한 이화인'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만발한 가운데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인 '영원한 이화인' 안승진(영교 75) 동창은 “오늘 우리 과 친구 15명이 축하하러 와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가 함께해 준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 같다”며 기쁨을 전했다. 안 동창의 영교과 동창들은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아온 우리 과의 대표”라며 안 동창을 축하했다. 안 동창은 “졸업 후 50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동기들과 정기모임을 이어 왔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이화인'은 39명이 추대되었는데 초등교육과에서는 특정 동창을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하는 대신 1995년 졸업 동창들이 졸업 30주년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30년간 의료사회복지사로 활동해 온 '올해의 이화인' 김현희(사복 95) 동창은 “학교를 자주 오갔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의 이화인' 동기들과 인연을 맺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영남대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올해의 이화인' 우혜영(무용 95) 동창은 친언니인 우숙영(피아노 87, 2017년 '올해의 이화인') 동창과 함께 자매가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흔치 않은 경우이다. 우 동창은 “언니가 저보다 더 기뻐해 준 데다 어머니(문옥숙, 성악 63)도 이화 동창이라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국제어문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올해의 이화인' 조숙자(중문 95) 동창은 추대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조 동창은 “바다보다도 더 큰 축하와 사랑을 받아서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과분하게 받은 사랑을

앞으로 어떻게 보답해 나가야 할지, 마음속에 큰 숙제가 생겼다”라고 감사의 소회를 밝혔다.

'올해의 이화인' 대표로 단상에 오른 강승애(체육 95) 동창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지금껏 이화인의 한 사람으로 이화의 이름에 흠집 내지 않고 묵묵히 잘 살아온 저에게 축하를 해주고 싶다”며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자축'의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올해의 이화인' 동기들과의 새로운 인연이 무척 반갑고 기대된다”며 기뻐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온 '올해의 이화인' 구자은(행정 95) 동창은 “미국에서 한국학 사서로 함께 일했던 이효경(문정 93) 동창이 '2023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되었는데, '올해의 이화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도움을 주셨다. 오늘 딸이랑 함께 왔고, 부모님도 대전에서 축하하러 와주셨다. 한복도 좋지만 학위수여복도 참 마음에 든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추대식에 이어 음악대학 합창단 '이음화' (단장: 양정희(성악 80), 지휘: 황선미(피아노 93), 반주: 곽예림(피아노 12))가 축하 무대를 꾸몄다. <번개>와 <Come Ye Sons of Art>라는 두 곡을 연주했는데, 특히 <번개>라는 곡을 통해 위트 넘치는 화음과 울동을 선보여 참석한 청중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안겨줬다.

'영원한 이화인' ·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





신학대학원 이음콰이어 합창단, 정자영 동창, 음악대학 이음회의 공연(사진 왼쪽부터)

2부 마지막 순서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동창회에서 진행해 온 주요 사업을 영상으로 되돌아볼 수 있었다. 영상에는 2024년 5월의 '황규호 사진전', 138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 9월의 대바자회, 10월의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10월 말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11월의 이화인의 밤, 12월의 이화가족 성탄예배, 2025년 3월 8일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4월 24일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 그리고 5월 12일 139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등이 담겼다.

다채로운 의상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합창제

3부 합창제는 김정령 총무와 김구슬 재정부장의 공동 사회 아래, 정소희(작곡 89) 음악대학 동창회장과 문주원(피아노 88) 총동창회 음악부장이 호흡을 맞춰 진행되었다. 올해는 총 7개 팀이 참가해 이화 동창들의 다양한 하모니와 멋진 퍼포먼스로 무대를 채웠다. 각 팀은 그동안 연습으로 다져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이화 가족과 동창들에게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시간을 선물했다. 정성이 깃든 멋진 합창과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며, 팀별로 선보인 개성 넘치는 의상 또한 합창제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렸다.

첫 순서로 등장한 자연과학대학 합창단(단장:최정임(물리 85), 지휘:박찬욱(중음 89), 반주:한정원

(중음 87))은 화사하고 자연미 가득한 배경 영상을 곁들여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선보였다. 영상의 봄빛 같은 정취와 가사의 아름다운 조화 위에 펼쳐진 합창은, 하모니 속에 봄이 스며든 듯한 매력으로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두 번째 무대는 사회과학대학 합창단(단장:김혜영(사복 87), 지휘:현리사(사복 92), 반주:양은진(피아노 10))이 꾸몄다. 흰색 블라우스에 이화를 상징하는 초록 스카프를 매고 등장한 단원들은, 복음성가곡 <혼자 견지 않을 거예요>를 정성스럽게 불러 따스한 위로를 전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견지 않을 거예요'라는 가사처럼 혼자일 때조차 누군가 곁에 있다는 위안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합창단의 부드러운 하모니와 어우러져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렸다.

세 번째 참가팀인 사범대학 합창단(단장:윤금진(영교 80), 지휘:김주연(중음 88), 반주:이아람(피아노 01))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원색의 원피스로 등장부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작년 빨간 치마와 색동조끼로 많은 웃음을 선사했던 사범대학 합창단 특유의 '패션 센스'가 올해 또 빛을 발했다. 리듬감을 살려 경쾌하게 편곡된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다채로운 율동과 함께 선보여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전달했다.

네 번째로 무대에 오른 조형예술대학 합창단(단



1. 자연과학대학 2. 사회과학대학 3. 사범대학 4. 조형예술대학 5. 생활환경대학 6. 대전 지회
7. 약학대학 합창단의 무대

장:이승은(동양 89), 지휘:김아영(도예 04))은 복음성가곡 〈Oh, Happy Day!〉를 경쾌하게 편곡해 선보였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대중가요 〈APT 아파트〉의 인트로를 도입부에 삽입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솔로 파트와 화음 파트의 아름다운 조화, 중간에 어우러진 관객들의 목소리, 그리고 합창단의 역동적인 울동이 더해져 ‘행복한 날’의 분위기를 흠뻑 뿜어낸 무대를 보여줬다.

다섯 번째 참가팀인 생활환경대학 합창단(단장:우미형(의식 77), 지휘:박미경(의식 76), 반주:이은경(가관83))은 흰색 드레스에 빨강고 커다란 꽃장식으로 강렬한 통일감을 선보이며 무대에 등장했다. 가벼운 민요풍의 〈아름다운 나라〉를 전문 합창단을 방불케 하는 풍부한 성량과 조화로운 화음으로 연주해 감동을 전하며, 그동안 무대를 위해 쏟은 단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여섯 번째로 대전 지회 합창단(단장:신기숙(피아노 76), 지휘:정계숙(성악 82), 반주:권현아(피아노 96))이 무대에 올랐다. 차분한 검정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단원들은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 〈내 맘

의 강물〉을 정감 어린 목소리로 연주해 관객들에게 차분한 감동을 선사했다. 노랫말의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처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어린 음색이 깃들여진 아름다운 무대였다.

마지막 무대는 대중가요 〈바람의 노래〉를 선보인 약학대학 합창단(단장:황미경(약학 86), 지휘:최영은(종음 97), 반주:박유미(종음97))이 장식했다. 반짝이는 별처럼 수놓인 의상과 화려한 머리장식으로 시각적 임팩트를 더했으며, 무대 중간에는 솔로 무용수가 등장해 멋진 독무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일곱 팀의 공연이 모두 끝나고, 모교 음악대학 학장인 박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의 합창제 총평과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박 부회장은 “오늘 합창제는 예년보다 더 많은 정성이 담긴 무대였고, 공연의 완성도 역시 매우 뛰어났다. 오늘의 이 무대는





돈을 내고 봐야 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만큼 모두 훌륭하게 해주셨다. 관객들의 귀와 마음이 모두 즐거웠을 것 같다"라고 총평하며, "이번 합창제는 경연이 아니라 축제인 만큼 순위가 아니라, 각 팀의 특색을 살린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라고 시상의 의미를 전했다.

노랫말의 정취에 어울리는 영상으로 관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던 자연과학대학 합창단에겐 '힐링상'이, 〈혼자 견지 않을 거예요〉로 함께하는 의미를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준 사회과학대학 합창단에겐 '동행상'이, 경쾌한 리듬감을 살려 선교와 봉사의 의미까지 느껴지도록 무대를 꾸민 사범대학 합창단에겐 '선교공로상'이, 활기찬 울동과 박자감으로 행복의 기운을 선사한 조형예술대학에겐 '행복충만상'이, 전문 합창단 못지않은 깔끔하고 풍부한 소리로 멋진 무대를 장식한 생활환경대학 합창단에겐 '으뜸상'이, 맑은 소리로 정성스럽게 노래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한 대전 지회 합창단에겐 '청성상'이, 별빛처럼 반짝이는 의상으로 무대를

빛내고, 곡의 분위기에 맞춰 뛰어난 연출을 선보인 약학대학 합창단에겐 '멋짐상'이 주어졌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준비된 선물과 감사 성금을 각 합창단에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정자영 동창의 선창에 따라 모교의 발전과 성장을 기원하는 뜻을 모아, 모든 참가자가 함께 교가를 제창하며 '동창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동창들과 이화 가족들에게는 모교에서 준비한 '이화과자 세트'와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수건 세트가 선물로 전달되었다. 무대 꽃장식은 이경희(약학 88) 총동창회 문화부장이 꽃시장에서 구입해 직접 기른 꽃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는 이화의 가치와 모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석한 동창들이 서로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전하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 실현할 것”

총동창회는 6월 13일(금)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 호텔 벨뷰 스위트홀에서 이항숙 모교 제18대 총장의 취임 축하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



1. 총동창회는 이 총장에게 모교의 시그니처가 새겨진 기념품을 전달했다 2. 케이크를 커팅하는 장명수 이사장, 이항숙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3. 배일환 교수의 축하공연

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이명경 총동창회장, 윤순희·김순영·조종남 전 동창회장과 이경숙·김영주·남상택 고문, 박정수(연구·대외)·유경하(의무) 부총장, 대학처장 및 학장,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대표 등 내빈과 총동창회 임원,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지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은주(특교 79)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항숙 총장님과 이화의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



고 응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배일환 모교 교수가 〈Julie-O (Mark Summer 곡)〉를 경쾌한 첼로 선율로 연주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고,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26만여 이화 동창의 마음을 담아 모교의 시그니처(심볼 마크와 로고)가 새겨진 순금 명함과 꽃다발을 이항숙 총장에게 증정했다.

이항숙 총장은 “수학과 교수로 교육과 연구를 하면서, 대학원 동창회장을 맡아 총동창회 회의에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소회를 밝히고, “늘 학교를 지지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총동창회의 사랑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어 취임 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실·글로벌사회공헌원·융합혁신연구원을 신설했다고 알린 후 “글로벌 명문 사학으로서 이화의 미래 과제를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총동창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장명수 이사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항숙 총장이 무대에 올라 축하 케이크를 잘랐고, 장명수 이사장의 건배사와 함께 축하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오찬을 들며 답소를 나누고, 테이블마다 다니며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 총장의 손을 맞잡으며 축하와 응원의 인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뒤 교가를 제창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글·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2025 영원한 이화인 (1975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게재



이사라(국문)
시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



이주영(영문)
남촌재단 고문,
적십자 본사 자문위원회 위원



이지연(독문)
이화여대 독문과 동창회
부회장 및 회장 역임



전옥경(기독교)
코피온(NGO) 총재,
서울아카데미 원장,
세종대학교 영문과 겸임교수



김대숙(사학)
이화여대 대학원 문학 박사,
평택대학교 교수



박선숙(사복)
Green Developer 대표,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채현경(피아노)
이화여대 음악대학 명예교수,
HK(인문한국) 음악문화연구소
소장



양미라(성악)
조지메이슨 대학교 성악과
교수, 케네디 센터 자문위원,
아시아 어메리칸 음악인협회
회장



이인숙(종음)
서울신대·청주대 피아노과
강사 역임,
現 음악대학 동창선교부장
회장



장옥빈(서양)
심리치료사(CPC)
서울참심리치료센터 원장,
온누리교회 상담센터 상담사



최순희(장미)
 ㈜라까사호텔 상임고문,
 ㈜까사미아 설립 및
 디자인연구소 소장 역임 외



정귀인(무용)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회장 역임



곽삼근(교육)
 이화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재)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이사장



오승희(유교)
 주부



하진경(교공)
 대한적십자사(본사/울산지사)
 자문위원



한기정(특교)
 이화여대 연구원, 중앙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송파 인성 종합복지관 관장 외



안승신(영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인문과학대학장 역임,
 한국언어학회 부회장 역임



한정근(법학)
 밀라노 이사



이정자(의학)
 이화여대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전진상의원 호스피스 봉사



양순옥(임상간호)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대한간호협회 보건의간호사회
 회장 역임



한영숙(보건간호)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
 피부미용학과 정교수 역임



정용희(약학)
 이화여대 약대건축위원,
 주홍장학위원,
 前 약대 동창회장



故이숙희(제약)
 前 울티마대학약국 약국장



이명숙(의직)
 의류직물학과 동창회장 4년
 역임, ㈜Joos Design Core
 대표이사



황성미(식영)
 미국 매사추세츠주
 前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2025 올해의 이화인 (1995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게재

* 초등교육과 1995년 졸업생 일동은 '올해의 이화인'을
추대하지 않고 후원금을 납부했습니다.



조숙자(중문)
미국 에리조나주립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최윤정(영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대외협력처장), SBS
프로덕션 제작국 프로듀서 외



나승연(불문)
오라티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대표, 평창 2018
유치위 대변인



이명주(독문)
아비코 빈젤 코리아
대표이사



정수진(기독)
유니버설 픽처스
인터내셔널 코리아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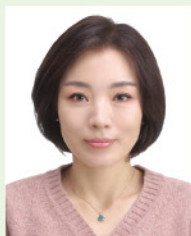
김종하(정외)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교수 및 입학처장,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외



구자은(행정)
세계 웹표준기구 웹 접근성
ARIA APG 공동의장 및
편집자, 일리노이대학
디지털 접근성 디렉터



김승해(문정)
AIG손해보험 PI
전략기획부서 부서장



전수정(커미부)
투자법인 운영,
'그레이 청담'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최우수상 수상



호정화(사회)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현희(사복)
의료사회복지사,
이대목동병원 사회사업팀
파트장,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유혜련(통계)
태성회계법인 회계사,
하나투어 사외이사,
이화학당 비상임 감사,
前 안진회계법인 상무



곽영신(물리)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설시경(컴공)
Dazzler Inc CEO,
미국 랜슬러 공대 Senior
Research Associate,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권정희(피아노)
린브랜딩 대표



정선영(성악)
오페라 연출가,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대표 및
예술감독



안선현(작곡)
이화여대 초빙교수



류정연(한음)
이화여대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교수,
국립국악원 수석단원 역임
외



김원영(서양)
김세종미술관 학예실장



이여름(조소)
미술작가(대표작
'아이스크림 속 인생',
'치유의 꿈' 등)



황지아(생미)
디자인모넨텀 대표,
레드닷 브랜드디자인 부문
수상 다수,
코리아디자인 어워드 2018
외



김소형(장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GSS
디자인 그룹장



강승애(체육)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위원
외



이명진(사회체육)
공무원(1995년부터 30년간
공직에 재직 중)



우혜영(무용)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교수, 새한국발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홍승미(교육)
現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청장,
前 병무청 기획조정관



유재경(의료)
안산대학교
언어치료아동보육과 교수



주리(교공)
(재)간송미술문화재단
대외협력팀장,
Brainsoft Inc. 감사



유은연(특교)
한국육영학교 교감



김현아(법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 박사(SJD),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남궁진(경영)
삼일회계법인 이사,
삼화회계법인 국제부
총괄파트너, 삼화회계법인
전무이사



유현주(국제사무)
(주)탑테이블 대표,
2024 CES 최고혁신상 수상,
3D&4D Food Printing
글로벌 탑티어 외



양훈진(의학)
이화미즈산부인과 원장,
한국여자의사회장상,
해외의료봉사 다수 외



김윤주(간호)
계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학술정보관장,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간호사 역임 외



김호정(약학)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직 중,
이화여대 석사/박사 학위
취득



이현주(제약)
미국 Align Technology Inc.,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케팅 총책임자 역임



이유나(의직)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8대 한국PR협회장
외



권영주(식영)
이화여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섬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는 은혜의 기회



5월 12일(월) 오후 2시, 대학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가 열렸다. 이번 감사찬양예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관 부서인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한 달 전부터 매일 마음 모아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였다.

1부 예배는 김정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예배의 첫 순서는 동창 대합창으로, 모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큰 목소리로

부르며 찬양하였다. 김동근 교수의 지휘, 전은배(종음 96) 교수의 오르간 반주, 김재희(피아노 96) 동창의 피아노 반주가 하모니를 이루며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졌다.

찬양 후에는 정현미(법대·법전원 82) 명예교수가 대표 기도를 하였고, 이후 이화그레이스퀘어의 특송 순서가 있었다. 이화그레이스퀘어는 이화여대 종교음악과 동창합창단으로 이화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 주님을 알리며 섬기는 찬양단이다. 이치복(종음 97) 동창의 지휘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대학교회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이후 사회자가 나와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봉독하였고, 이대 대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윤재 교목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윤재 교목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으로, 이화가, 또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약속한

신 복을 누리야 함을 전했다.

이번 감사찬양예배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설교 말씀 후에

대표 중보 기도를 한 이향숙 총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신종윤 학생, 이명경 총동창회장



는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을 찬송하였고, 찬송 후에는 조선영(영문 74)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봉헌기도와 장윤재 교목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 김미순(기독 75) 전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사회로 2부가 시작되었다. 대표 중보 기도 시간에 교직원 대표로는 이향숙 총장이, 의료원 대표로는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이, 재학생 대표로는 신중운(약학 석사과정) 이화기독학생연합 대표가, 26만 동창 대표로는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이 나와서 중보 기도를 드렸다. 이들이 나와서 드리는 찬양, 감사, 회개, 간구의 기도 제목은 회중의 마음을 울렸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였다. 각 순서자들의 중보 기도 후에는 합심기도를 드렸는데 참석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의 장이 되었다.

스크랜튼 선교사의 영상이 상영된 후, 동창 선교사들과 총동창회 선교부 부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특송을 올려드렸다. 그 후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는 장은혜(영교 85) 선교사의 간증이 있었다. 장 선교사는 에티오피아에서 남편 박종국 선교사와 함께 교수 사역과 교회 개척, 길거리 아이들의 구제와 교육 사역을 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 이후 키르기스스탄 유학생인 메리안나(사복 박사과정) 학생이 나와서 간증하였다. 한국에 유학 와서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주변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돕고 세우는 그의 간증은 참석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이어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동창 선교사인 나칼레마(대학원 17) 선교사와 그를 돕는 박마리아 선교사, 우간다 음악원 학생들이 나와서 아프리카 전통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어가 다르지만 열정적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참석자들도 함께 박수 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동근 교수의 지휘와 김재희 동창의 피아노 반주, 이현정(종음 93) 동창의 선창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다함께 부르며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과 섬김을 주제로 시작된 이번 감사찬양예배를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예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화와 이화 구성원들의 중보 기도, 이화를 졸업한 동창 선교사의 사역과 간증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가 되길 기도드린다.

글·이수진(조소 05)



동창대합창, 이화그레이스과 이어, 동창 선교사와 선교부원 특송 무대에 이어 우간다 음악원 학생들의 특송과 찬양이 이어졌다(사진 위부터)

장윤재 교목의 말씀과 장은혜 선교사, 메리안나 학생의 간증 시간



동 창 이 퍼 낸 새 책



이화 영어영문학과 100년

서지문(영문 69)·정덕애(영문 74)·오정화(영문 76)·정경숙(영문 79)·김인성(영문 80)·박선이(영문 84)·이방원(사교 88)·최혜원(영문 89)·오은진(영문 90)·이승아(영문 91)·이형숙(영문 94)
이화 영어영문학과 100년 간행위원회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기획부터 집필, 감수에 이르기까지 교수진과 동창들이 함께한 이 책은 공동체의 유산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루어진 협업의 산물이다.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승아 동창이 간행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화사학연구소 연구교수 이방원 동창과 SOAS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연구교수 김인성 동창이 집필을 맡았다. 감수위원으로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명예교수인 서지문 동창과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명예교수 정덕애·오정화·전수용 동창, 제33대 영화회 회장 정경숙 동창, 명지대학교 교수 박선이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최혜원·



오은진·이승아·이형숙 동창이 함께하였다.

러브호텔에서의 하룻밤

오경안(법학 75)

최전승 글, 오경안 그림 / 역락

오경안 동창이 남편 최전승 전북대 명예교수의 글에 자신의 그림을 곁들여 그림이 있는 산문집 『러브호텔에서의 하룻밤』을 출간하였다. 어려웠던 고등학생 시절의 추억, 존경했던 마음의 스승 등 소품 같은 글에 오경안 동창의 한국화가 어우러졌다. 한국화 작가인 오경안 동창은 한국 전업미술가협회 회원으로 개인전 및 그룹전을 200여 회 가졌다.



신촌에 피운 배꽃

오정화(영문 76), 김수연(영문 96)
앨리스 아펜젤러 글, 오정화·김수연 편역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 책은 앨리스 아펜젤러가 이화학당 교사로 부임한 다음해인 1916년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주고받은 편지, 전보, 각종 기록들을 담고 있다. 한국과 한국인을 '내 고향', '내 민족'이라 부르고, 이화의 소녀들을 '내 딸들'이라 칭했던 아펜젤러의 글에는 한국과 이화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오정화 동창은 모교 대학원장 및 인문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명예교수이다. 김수연 동창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에서 영어교육을, 글로벌소통교육실에서 교양영어를 강의했다.



오직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

이진숙(이진, 불문 81)
이진 지음 / 미다스북스

이진숙 동창이 『오직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 관광객은 알 수 없는 영국인이 사는 법』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영국의 일상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최소한의 행동경제학

김나영(사교 01)

김나영 지음 / 가나출판사

경제 교육 전문가인 김나영 동창이 『최소한의 행동경제학』을 펴냈다. '나는 왜 필요 없는 걸 자꾸 사게 되는 걸까?' 김나영 동창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알아야 할 36가지 심리 법칙을 다루고 있다. 경제교육학 석사, 행동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나영 동창은 서울 양정중학교 사회 교사로 재직 중이며, 실험과 게임을 통해 경제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체득하는 교내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16년째 운영하고 있다.



예술가의 성냥갑; 독학 예술가 오혜재 글모음

오혜재(영문 07)

오혜재 지음 / 부크크

오혜재 동창이 네 번째 예술서 『예술가의 성냥갑』을 출간했다. 이 책은 예술 관련 리뷰, 칼럼, 비평을 엮은 작품으로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오혜재 동창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년간의 국제 업무 경험과 다문화·상호문화 협동과정 석사 전공을 토대로, 예술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 강유순 동창

희망의 공동체를 일구며 ‘함께 사는 사회’의 가치를 실천하다



한 사람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랜 세월 동안 따뜻한 손길로 교민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희망으로 일구어 온 강유순(오유순, 약학 69) 동창은 그 질문에 깊고 묵직한 답을 주는 인물이다. 1969년 모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동 대학원 석사를 마친 뒤 캐나다로 건너가 밴쿠버 최초 한인 약국인 오약국의 약사로서,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의 여성 리더로서 꾸준한 기부와 봉사의 삶을 걸어 왔다. 밴쿠버 한인회장과 밴쿠버 한인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강 동창은 현재 무궁화재단 이사장으로 활

동하며 한인 장학 사업을 비롯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사업, 국경을 넘는 구호 활동과 봉사 활동, 한인 양로원을 위한 기부 운동 등 나눔의 현장에서 헌신을 멈추지 않으며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가치를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캐나다 교민 사회에 큰 버팀목이 되기까지

1968년 이스라엘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생대회’에 학생 대표로 참석했던 경험은 우물 안 개구리였던 강 동창의 세계관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회 일정을 마치고 김옥길 총장의 배려로 스웨덴,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지로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공부하고 싶다는 가슴 벅찬 포부를 품게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즉시 유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유학길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을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죠.”

강유순 동창이 사회에 빛을 비추는 공인이 되기 까지는 한 사람의 아내이자 세 아들을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한 그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남편 오강남 선생은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로, 부부는 유학 시절 함께 캐나다로 건너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동시에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아내보다 먼저 박사학위를 마친 오 교수는 훗날 『길을 걸으며 행복했습니다-오유순 회고록』 출사에서 아내 강유순 동창을 ‘내조의 여왕’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완벽한 내조 덕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강유순 동창은 단지 가정을 지켜낸 것에 그치지 않고, 이사할 때마다 거주했던 캐나다 5개 주에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역량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처음 해밀턴

시에 살 때 약국에서 인턴십으로 일하고 남편 공부 뒷바라지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이들을 챙기는 등 시간을 쪼개어 살면서도 새벽 4시에 왕복 5시간 걸리는 토론토대학 약학부로 공부하러 다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재우고 밤에 다시 도서관에 가서 약사 자격증 시험을 위해 정말 피나게 공부했지요.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야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강 동창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격증으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약사가 되었다. 약국을 경영하며 쌓은 지역사회의 신뢰 덕분에 재정적으로도 든든한 부를 얻었고, 캐나다 정계 및 경제계의 주류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교민 사회에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상보다 더 값진 헌신의 기록

2024년 7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버나비시에 한 공동주택이 문을 열었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공동주택은 지역 내 가장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유니스 오 레지던스(Eunice Oh Residence)’로 명명되었다.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강유순 동창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양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이름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선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주변의 권유에 그 뜻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공동주택 건립에 기여한 그녀의 헌신은 캐나다 사회에서도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한국계 이민자 여성으로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강 동창이 수십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기울인 시간과 정성, 그리고 그로 인해



‘유니스 오 레지던스’ 앞에서

변화된 수많은 삶에 대한 증표였다. “정말 상상도 못할 뜻밖의 일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저소득자를 위한 정부 보조 아파트 단지를 이민자 이름으로 명명한 일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자리 잡았을 때 당시 학생 신분이었어서 정부에서 수입의 3분의 1만 월세로 내면 저소득자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민 온 지 40년 만에 그 은혜를 갚게 된 것 같습니다.”

강유순 동창은 특히 한국계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그녀는 무궁화재단을 비롯한 밴쿠버 한인사회가 힘을 모은 것에 더해 개인적으로 1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부해, 밴쿠버의 공립 요양원인 ‘뉴비스타 케어 홈’의 한 층을 밴쿠버 최초로 ‘한인 전용 공간’으로 지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약국을 경영하면서 한인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자주 접하게 되었어요. 제 아버님 친구분의 경우, 언어소통도 안 되고 음식도 맞지 않은 캐나다 양로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단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걸 보고 한인 요양원의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 결심은 한인 요양원 설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한인 노인들은 익숙한 언어와 음식, 문화 속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민 1세

대들이 겪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강 동창은 장학 사업으로 세대 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배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강 동창은 밴쿠버 한인장학재단 이사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매년 1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953명의 한인 학생들에게 총 148만여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그중 상당수의 한인 2세들은 현재 캐나다 사회의 주요 전문직 종사자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다시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교 약학과 후배들에게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후학 양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녀는 언제나 ‘경험을 통한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배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이화인의 이름으로 세계와 연결된 리더십

강 동창의 삶과 헌신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국무총리 표창(2004), 대통령 포상(2010), 국민훈장 모란장(2023)을 수상했으며, 캐나다 정부로부터는 다이아몬드 주빌리 메달(2013), 건국 150주년 기념 메달(2017)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캐나다 약사회로부터 지역사회 환자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Apothecary Hero’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밴쿠버를 넘어, 세계 속의 이화인으로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강 동창은 2012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을 맡으며 캐나다 서부 지역 최초로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북미와 한국, 전 세계 이화동창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밴쿠버 동창회와 세계 이화 동창회 간의 유대를 강화해 왔으며, 이화의 이름이 세계 무대에서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특히 그녀는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지닌 동창으로서,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일은 저에게 이화인이라는 긍지를 되살려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전 세계 이화인과 인연을 맺고 한 울타리 식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회고했다.

그녀의 나눔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 있다.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일본 쓰나미, 2013년 필리핀 지진, 2015년 캐나다 앨버타주 산불 재해 등 각종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마다 그녀는 밴쿠버 한인 사회를 조직해 수만 달러에 이르는 구호 성금을 전달해 왔다.

그 외에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비영리 봉사단체 ‘First Steps’ 이사로서 참여했던 북한 어린이 돕기 활동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다.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콩과 두유 제조 기계를 보내 주는 일을 했는데, 그때 전달 상황 점검차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학교와 탁아소, 고아원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살펴 보고 했다”며 “마지막 날 안내원이 당시 내가 은밀히 전해 줬던 진통제와 항생제로 수백 명을 살릴 수

뉴비스타 요양원 앞에서 권중호 총영사와 함께(2023년)



있어 고마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안도와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고 전했다.

강 동창에게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일까? 강 동창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소유한 부는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니 “아끼고 소중히 쓰다가 나중에는 돌려주고 떠나야 한다”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 그런 강 동창에게 나눔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으리라.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 지난 2024년 12월 약국 운영을 그만두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전히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실천한다.

인터뷰 말미, 강 동창은 담담하지만 따뜻한 목소

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매 순간 그때그때 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훗날 캐나다 밴쿠버에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장소를 마련하고 싶은 꿈(밴쿠버 한인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이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화가 그녀를 길러냈고, 그녀는 그 이화의 정신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심고 있다. ‘빛나는 이화인’이라는 이름이 강유순 동창에게 수여된 것이 아니라, 강유순 동창이 그 이름을 더 빛나게 만든 것이 아닐까.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빛나는 이화인

이주여성과 취약계층 위해 헌신한 의사 이종민 동창

3만 이화동이 ‘대모’의 경계 없는 사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산부인과가 최근 10년간 34% 줄었다고 한다. 저출산과 의료사고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분만이 어려운 취약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천안에는 산모들이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이화병원’이 있다. 2025년 ‘빛나는 이화인’ 상수상자 이종민(의학 80) 동창은 ‘이화산부인과’로 시작해 40년간 천안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하

면서 3만여 명의 이화동이 탄생의 순간을 함께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주여성을 위한 무료 진료, 멘토링 그리고 희정복지재단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친정지역 방문 의료봉사, 해외 빈민 지역에서의 주택 건설, 진료, 식수 개발과 결핵 퇴치 활동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 생명을 40년간 지켜오고 있는 이화병원

이 동창이 1985년에 시작한 이화산부인과는 2002년에 '이화여성병원'으로 확장했고, 2010년에 지금의 '이화병원'이 되어 의사가 18명, 전 직원이 150여 명이다. 24시간 대기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 지도 40년이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기까지는 저의 노력이나 가족들의 보살핌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기증한 분이 계셨으니 해부학 공부도 할 수 있었지요. 사회적인 빛이 있으니 40년은 꼭 채우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2시간 수술이 있었어요. 의사로서 24시간 대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가끔 긴박한 일이 발생할 때는 쉽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저녁 9시쯤 산모가 진통이 있어 내원했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피가 왁자 쏟아져 확인해 보니 ‘태반 조기박리’였어요.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건데,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두 생명이 생사기묘에 서 있다 보니 이것저것 돌볼 겨를 없이 국소 마취제 놓고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내고 있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뛰어오셨지요. 그런데, 아기가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심장 소생술과 심폐 소생하여 아기 우는 것을 확인한 뒤, 아기 엄마에게 오니, 태반 조기 박리 후 자궁 수축이 안 되어 하혈이 계속되고 있어서 보호자에게 알리고 자궁을 적출하여 무사히 살렸어요. 그러고는 대학병원으로 보낸 아기가 뇌 손상되지 않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고, 그 힘든 일을 해낸 아기 엄마에게도 감사했지요.”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긴장해야 하지만 새 생명을 처음으로 맞는 기쁨은 무엇보다 크다. 천안에서 올해로 4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다 보니 이 동창의 손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가 산모가 되어 이 동창을 찾아와 출산하는 사례가 40건 정도 된다. 미국에서 인연을 맺어 결혼한 부부가 출산하러 왔는데 부부가 모두 이화등이인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와 터뜨리는 첫울음에는 가슴 찡한 감동이 있어요. 3만 명 넘는 아이들을 받았지만, 그 어느 아이도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지요. 친정어머니가 임신중절 수술을 늘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셔서 1994년 이후로는 그 수술은 안 해요.” 이화병원은 생명존중 유아병원이다.

현장의 고단한 삶을 찾아가는 희정복지재단과 해외 의료봉사

병원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서 원래 자리에 있던 건물은 헌납하여, 부모님의 성함 중간자를 따서 ‘희정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농사지으며 6남매를 키웠다. 살아생전 아버지는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며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곤 하셨고, 그 영향 때문인지 이 동창은 어려서부터 남을 살피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분만한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산모교실에서 이종민 동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 지킴이'로 앞장선 것도 그 일환이다.

이주여성의 어려움에 깊게 공감하게 된 것은 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생활이 힘들어 자살 기도를 한 이주여성이 병원에 실려 오게 되었던 것. 당시는 가족들이 외국인 아내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정서적 안정에 문제가 있는 이주여성이 많았다.

10여 년간 상담을 하면서 이들을 하나로 묶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 동창은 2004년부터 회정복지재단에서 '국제부인모임'을 만들어 그들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시작했다. 1,000포기 김장 담그기를 비롯한 각종 한국 요리와 풍습 교실 운영, 코시안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 남편과 자녀 초청 모임,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동창은 그들의 집을 일일이 직접 방문하던 중, 남편은 집 나간 지 오래됐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데 엄마는 우울증으로 드러누워 있는 상황을 보고서 '파로스로타리클럽'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스크랜튼 여사의 이화정신이 체화된 경계 없는 보살핌

또한, 먼 나라로 와서 친정 한 번 못 가보는 사정을 접하고는 친정 동네에 진료팀이 함께 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17차례 다녀왔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페루, 동티모르 등 나라도 다양하다. "해외 의료봉사 갈 때는 우선 그 지역민 수만명의 기생충약을 챙기고, 결핵약도 가지고 가요. 결핵은 가족 중 1명만 걸려도 그 가정의 파탄 나다 보니 결핵약은 1년 분을 가지고 가는데, 약은 반드시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것으로 합니다." 현지의 친정 가족들이 기뻐하고 자랑스러



이 동창이 동티모르에서 실시한 의료봉사 현장

워 하는 모습은 덤이다.

의료봉사 나갔다가 접하게 된 마닐라 남부 빈란 시티에서는 이 동창과 남편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로타리3620 지구에서 빈민을 위한 주택 100채를 짓는 사업을 하여 현재 반 정도 진행되어 일부는 입주한 상태이고 일부는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김치공장, 화장지 공장 등 무엇이 좋을까 찾는 현지 사정 조사로 이 동창 부부는 밤을 지새울 때가 많다.

"동티모르는 수인성 질병으로 어린이와 노인의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고, 성인의 체중이 40kg을 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저체중이라 가지고 간 체중계가 고장 난 걸로 착각될 정도였어요. 의료봉사도 필요하지만, 식수 문제 해결이 가장 급박한 일이라 요즘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편, 검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을 만들기 이전에 이 동창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을 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초상권 보호 등 범죄자 인권은 중시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없던 때였어요.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이 없어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니,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했지요."

요즘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 대림산업 대표이사 출

신 남편과 함께 이 동창의 고향인 온양에는 ‘환자 가족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이화피닉스 요양병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는 아들도 산학협력으로 함께 연구하여, ‘육창 방지 매트리스’를 개발하여 요양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이러한 활동은 이 동창의 의대 학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시골 출신이다 보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갔어요. 용산 야채시장(현 전자상가) 옆 하수천에 천막을 치고 결핵 환자들을 데리고 사시던 스테파노 수사님이 계셨어요. 교과서에서 관련자료를 찾아보면서 친구들이랑 진료를 다녔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결핵약도 챙겨가고 밥 나르고 설거지도 해가면서요. 그곳에서는 무료 급식도 했었는데, 제가 결혼한 후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남편이 그걸 배낭에 메고 기차 타고 가지고 간 적도 있지요.”

1970년대 후반기에는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되던 때라 철거민들이 많았다. 청계천 철거민들이 양평동, 소사를 거쳐 인천 만수동 철거민촌에 살았는데,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우리 이화는 스크랜튼 여사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정신이 있어서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과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필리핀 의료봉사에 나선 이 동창을 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전하세요, 실패해 본 사람이 큼니다”

이화정신으로 생활할 뿐이라는 이 동창은 후배들에게 이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할 것을 당부한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단함에 노출시키세요. 예전에는 심부름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었지만, 부모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스스로 찾아서 청소든 요리든 해 보세요. 더 나아가 실패를 해 본 사람을 클 수밖에 없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도전하기 바랍니다. 실패 없이 한 소년급제가 사실은 불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젊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나이 들어 찾아온 실패에 당황하고 무너지고 말지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첫째, 남녀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병 검사와 함께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반드시 해서 서로 결과를 공유하세요. 경부암, 외음부암, 항문암, 두경부암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성병보다 무서운 겁니다. 둘째, 소중한 아기를 출산한 후에는 24개월까지는 아기의 곁을 지키세요. 아기 뇌의 70~80%는 태내에서 형성되지만 태어나서 완성되는 것은 24개월이에요.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셋째, 아이들은 몸이 작아서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영향이 크니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이세요. 넷째, 아이의 리듬에 맞춰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 늦어봐야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아이 스스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은데 부모까지 재촉하면 정신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3만 이화동이 대모 이 동창은 아이는 돈 가지고 키우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사랑으로 키울 것을 당부했다.

글·허윤선(정외 89)

동창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선을 함께 모색하다



총동창회는 4월 24일(목)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상택(물리 74) 고문과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총동창회 임원을 비롯해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과 모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올 한 해 총동창회의 주요 사업을 알리고 과, 대학(원) 및 국내 지회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는 만남의 자리이다. 김경령(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기도와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이향숙 총장의 모교 소식, 2025년도 사업 계획 보고, 과, 대학(원) 및 국내 지회의 참석자 소개와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아름다운 이화의 봄날,

한자리에 모여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모교와 총동창회를 향한 관심과 수고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주도적이고 겸손한 리더십으로 계속 섬기고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동창회는 동창 여러분과 모교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하여 공동선을 함께 모색하고 구현해 가는 데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도움이 필요시 총동창회에서 힘닿는 대로 함께 마음을 모으겠다”고 말한 후 “오늘 회의가 복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맺었다.

다음으로 김경령 총무가 2025년도 총동창회 사업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화 창립 139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찬양 예배’(5월 12일(월))를 시작으로 ‘창립 139주년 기념 동창의 날’(5월 30일(금)) 기념식이 진행된다고 공지하고, 이 자리에서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식과 ‘졸업 50주년·30주년 동창 재

상봉 행사' 그리고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 및 '합창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하반기에는 '충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9월 중)와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9월



남상택 고문, 이명경 회장, 한은주 부회장(사진 왼쪽부터)

23일(화)), 제1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10월 중)가 개최된다고 알리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10월 23일(목)~26일(일))에는 충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화인의 밤'(11월 24일(월)) 행사와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4일(목))가 예정되어 있다고 알렸으며,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와 신규 후원이사 모집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충동창회에서 운영하는 동창회관(이화·삼성교육문화관) 1층의 '황화방' 카페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이어 이향숙 총장이 영상으로 모교 소식을 전했다. 이 총장은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하고, 과, 대학(원) 및 지회에서 수고하는 동창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향숙 총장은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과제를 알렸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 둘째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신, 셋째 이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미래전략실 신설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화 정신을 실천해 온 이화동창들은 이화의 자랑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동창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재교육 및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내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기회를 마련하여 동창들이 이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화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한 후, 계속해 과, 대학(원) 및 국내 지회에서 참석한 임원들의 소개와 활동 보고를 이어갔다. 남상택 고문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줌으로 비대면 회의를 하다 직접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다"며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은주(특교 79) 부회장은 "연중행사가 많지만 이렇게 뜻깊고 기대가 되는 행사는 많지 않다"면서 "오늘 특히 많은 동창이 참석하였는데 앞으로 도와주실 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반겼다. 한 부회장은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으니 1년 활동의 에너지를 받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영문학부와 음악대학 설립 100주년 함께 축하해

모교의 '이화여자전문학교 설립 100주년'과 함께 올해 영어영문학부 설립 100주년을 맞은 영문과 정경숙(영문 79) 회장은 "5월 말까지 ECC 대산 갤러리에서 이화역사관과 공동으로 100주년 기념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하는 동창들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전시장 내 모교 영문과 동창들이 출간한 300여 권의 도서로 가득 채운 서가는 여성의 사회 진출 선두에서 역할을 다해 온 영문과의 위상을 보여 주니 함께 둘러보며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100주년을 맞은 음악대학 정소희(작곡 89) 회장은 “음대 설립 100주년 기념 연주회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며 감사와 찬양의 큰 축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며, 5월 21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예정된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음악회’ 소식을 알리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도약하려고 한다”며 많은 응원을 부탁했다.

참석한 동창들은 일제강점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선 유일의 여자 최고학부의 역할을 한 모교의 위상을 되새기며 함께 축하했고, 행사를 위해 수고한 동창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한편 다가올 100주년 준비에 돌입한 생활환경대학 박경임(식영 73) 회장은 “2029년 가사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에 개최되는 첫 포럼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알렸다.

한편 “100주년 되는 학과도 있는데, 이제 9년 밖에 안 됐다”라면서 “까마득한 선배님들과 함께 해 너무 떨린다”고 소개한 사이버보안학과 김연희(사이버 21) 회장에게는 이날 참석한 가장 젊은 동창으로서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동안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과의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보고한 사례도 많은데,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어도 하나의 과로 인식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뭉쳐서 활동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희수(커미부 86) 회장, 융합보건학과 이계은(융보 87) 회장 등). 한편으로는 “학문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생각해서 학과 부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고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알린 가정관리학과 이향진(가관 87) 회장과 종교음악과 이세리(종음 15) 총무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각종 기부 소식에 따뜻한 박수로 감사 표해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창회 또는 개인 차원에서 발전 기금을 기부한 소식에는 참석자들이 따뜻한 박수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경영대학 김지훈(경영 90) 회장은 ‘경영학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 기금’으로 9억여 원을 모금해 이화·신세계관 1층에 ‘60주년 기념홀’을 조성했다고 알렸다. 의과대학 피상순(의학 84) 회장은 “학교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1억 원을 연구 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모교 병원은 여섯 개의 특화된 전문 병원과 장례식장이 있으니, 동창들이 모교 병원을 많이 이용해 모교를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올해 설립 80주년을 맞은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은 세미나 준비 등 다양한 행사를 알렸다. 약학대학 황미경(약학 86) 회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약학대학으로, 총동창회와 함께 성장하는 약대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동창회가 발전하는 데 젊은 동창의 유입이 큰 힘이 된다는 공감대 아래 신입 회원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입 회원을 확보하고, 장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국문과(현혜경(국문 76) 회장), “80·90학번들의 동창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86학번 젊은 회장을 추대했다”는 독문과(황지숙(독문 92) 부회장), “시험 기간에 햄버거 세트로 재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기독교학과(김미희(기독 86) 전 회장) 등 젊은 동창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공유했다.

국내 지회에서는 대구 지회, 대전 지회, 수원 지회, 원주 지회, 청주 지회에서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 의미를 더했다. 대구 지회 권애실(불문 82) 회장은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하니 입구부터 너무 달라진 모습에 매우 놀랐다”며 “코로나 이후 동창 모임이 많이 위축되고 참여도가 낮아져 다른 지회의 조

언을 듣고 싶다”고 고충을 말했다. 한편 수원 지회 최원주(의학 79) 회장은 지난해 모교 명예훼손 발언에 항의 시위로 맞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올 4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참석한 동창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함께 정외과 김희정(정외 88) 회장 역시 “지난해 발표한 정외과 공동성명서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알리며 동창들의 관심과 기도를 청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밖에 대외협력처에서는 동창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화의료원 할인 혜택’과 학교 명의의 ‘경조사 서비스 혜택’을 비롯해 학교 공식 이메일 주소 ‘ewha.ac.kr’ 발급 등을 알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참석한 동창들은 활동 보고를 모두 마친 후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샌드위치 도시락으로 오찬을 들며 환담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교가를 한마음으로 부르고 모교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참석한 동창들에게는 모교에서 준비한 ‘티코스트’, 총동창회에서 ‘냄비 반침’과 ‘떡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글·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예술과 리더십으로 세계를 이으며 국제무대에 우뚝 서다

지난 2024년 2월, 이지선(Jiseon Lee Isbara, 섬예 96) 동창이 미국의 대표적 예술대학인 시카고예술대학(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의 총장으로 선임되며, 159년 역사상 첫 아시아인이자 두 번째 여성 총장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그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 동창은 모교에서 쌓은 예술적 소양과 창의적 리더십을 토대로 미국 무대에서 예술가, 교수, 행정가로 입지를 굳혀 왔다. 그 여정에는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탁월한 역량,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 동창이 이룬 성취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예술 교육과 리더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화에서 피어난 예술가의 뿌리

이지선 동창에게 모교에서의 학창 시절은 단순한 배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섬유예술학과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전통적 기법과 창의적 시각을 동시에 키워준 소중한 시기였다.

“자수, 직조, 섬유조형 등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거치며 참여한 모든 섬유예술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고 새로웠습니다. 실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거나 직조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한 섬유예술은 제 성격과 잘 맞았어요.”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동대문시장을 돌며 재료를 구입하고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작품을 완성하던 순간들, 졸업 무렵 취업 준비와 진학 준비로 고민했던 시간들이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어리고 순수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오랜 탓에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진 동기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쉽긴 하죠.”

이 동창은 이화가 ‘여대’여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형성한 중요한 토대였다고 말한다. 여성으로서, 예술가로서, 리더로서 독립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 근간에는 ‘이화’라는 울타리가 있었다. “여성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화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 덕분에 사회의 편견과 도전 속에서도 나만의 목소리를 내고 길을 만들어 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성실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신 어머니 고(故) 윤석애(의학 71) 동창의 가르침 또한 오늘날 이 동창이 세계 예술 교육 현장에서 여성 리더로 우뚝 서게 한 든든한 자산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활동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직업을 갖고 꾸준히 일하는 여성에 대한 꿈을 키웠던 이 동창은 예술에 대한 열정 덕분에 ‘평생 작업할 수 있는 직업’인 교수가 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교직을 갖게 될 줄은, 그리고 시카고예술대학 총장에까지 오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

리더십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일

이지선 동창은 경력의 어느 지점에서도 ‘하나의 결정적 전환점’보다는 작은 도전의 연속이 자신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 말한다. “풀타임 교수직과 행정직을 병행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을 안고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건 제 일이 재미있었고, 더 복잡한 일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제 파트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해준 남편도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외국인 교수로, 또 1세대 이민자로 겪은 문화적 장벽과 언어적 한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은 이 동창이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특별한 계기나 도전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경험을 쌓고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기회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협업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시카고예술대학 LA지역 동창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2024년 11월)

역할을 찾고 확장하는 과정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동창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 여기며, 여기에 더해 다양한 세대와 함께 일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큰 행운으로 느낀다. 그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그동안 여러 일을 해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쌓은 깊은 교훈이 자리하고 있다. 이 동창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이끄는 데서 가치를 찾는다. 동료들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열린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이 동창이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의 방식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는다. “저는 항상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를 최대한 받아들이려 합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든 아니든, 그 과정이 제게 큰 배움이 되기 때문이죠.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이 빛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서로의 성장에 더욱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예술 교육의 미래 비전과 다양성 및 포용성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

예술 교육의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묻자, 이지선 동창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예술과 디자인은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의성뿐 아니라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죠. 다시 말해 예술 및 디자인 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창의성에서 시작되면서도 정치, 문화, 과학과 기술, 역사를 잘 이해하여 시대적 요구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SAIC 오리엔테이션 및 입주하던 날 동료들과 함께(2024년 8월)

시카고예술대학은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비평하며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다양한 커리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 수업이나 강연 등을 통해 학생들이 더 넓은 견해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나 자신과 타인 혹은 대중에 대한 이해를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나아가 이지선 동창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을 실현하고자 한다. “한때는

미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가 녹아 있는 융광로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모자이크’나 ‘샐러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채로운 문화의 집합체라는 뜻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뛰어넘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포용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은 구조로, 철학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시카고예술대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로, 전체 학생 중 약 30%가 유학생이며, 80여 개국에서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학생의 30%는 유색인종, 30%는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First Generation Students’이다. “이 점은 대학이 학생과 그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 속의 이화, 그 중심에서

이 동창은 앞으로 이화여대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대학에 바라는 교육의 기준과 요구 사항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 분야를 넘어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산업 및 분야에서 추구하는 기준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를 향한 야망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확립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가 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교육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우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동창은 앞으로 모교 이화와의 연대를 더욱 깊게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시카고에 온 후 모교 총동창회 일리노이 지회를 통해 많은 선후배 동창을 만날 수 있었고,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 시카고예술대학이 모교와도 협력 관계를 형성해 더 많은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시전 동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소소한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삶을 실천 중이다. 미래를 지향하는 오늘의 책임을 다하고, 가족과 일에 충실한 삶. 그것이 그녀가 말하는 진짜 성공의 모습이다. 앞으로도 이 동창의 행보가 세계 속에서 이화를 더욱 빛내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글·정진숙(행정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 동 창 회 소 식

1

김영주 고문 연임, ‘동창의 날’ 행사 논의

2025년 4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총 43명 중 참석 32명, 위임 8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4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동창회 회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회칙 개정 진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남상택(물리 74) 고문은 지금부터 준비하여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모아 가을에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고 연말에 정기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내년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상반기 중에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은주(특교 79) 부회장은 5월 12일(월) 오후 2시에 열리는 감사찬양예배가 올해는 대학교교회로 장소가 변경되고 총동창회가 주관한다고 안내하였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대학교회는 총장과 학장 및 교수들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각 과의 많은 홍보 및 단과대학 합창단의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은주 부회장은 5월 30일(금) 기념식에 이어 열리는 합창제는 축제의 형식이고, 7개 단체(자연과학대학 41명, 약학대학 40명, 조형대학 30명, 사회과학대학 25명, 사범대학 30명, 생활환경대학 27명, 대전지회 40명)가 참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찬조 공연은 신학대학원 ‘이음콰이어’ 20명, 축하 공연은 음악대학 ‘이음회’ 32명이 참여한다고 안내했다. 피상순(의학 84) 의과대학 회장이 식사 제공에 대해 문의하자, 남상택 고문은 예전에는 총동창회가 아니라 모교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학생식당에서 대접했는데 코로나로 중지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건물 신축 문제로 학생식당 사용이 어려워지게 되어 식사 대접이 사라졌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모교 사정상 변경되었다는 것을 동창들에게 잘 전달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빛나는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경숙(영문 70) 고문,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경희(약학 88) 문화부장, 최지영(사학 89) 홍보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부회장, 김정령(수학 84) 총무 외에 후보를 추천한 3개 대학(자연대학, 의대, 약대)을 제외한 단과대학의 회장 중에서 추천과 거수 절차를 거쳐 이승은(동양 89) 조형대학 회장, 윤금진(영교 80) 사범대학 회장이 선정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한은주 부회장은 김영주(유교 71) 고문 연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김영주 고문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2

‘영원한 이화인’ ·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 열려



영원한 이화인 추대 발대식

총동창회는 2025년 4월 12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각각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을 가졌다.

먼저 오전 11시에는 졸업 50주년 동창 중 각 과를 대표해 추대된 ‘영원한 이화인’ 추대 발대식이 열렸다. 한은주 부회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각자 소임을 다하며 이화 정신을 실천해 온 분들이 졸업 50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이화 DNA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동기들을 대표해 이화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동창회 임원 소개와 함께 신난식(성악 73) 이올(이화여대 올해의 이화인, 이하 이올) 회장의 이올 임원진 소개가 있었고 김구슬(법대·법전원 93) 재정부장이 영상을 통해 지난해 ‘동창의 날’ 행사 모습, 사진 자료를 통해 보는 모교의 역사, ‘동창 여왕’부터 ‘메이퀸’을 거쳐 ‘올해의 이화인’까지 이르는 변화 등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추대된 ‘영원한 이화인’ 23명이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짧고 간결하지만 연륜 있는 자기소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작고한 고 이숙희(제약 75) 동창을 대신해 참석한 서성애(제약 75)

동창의 소개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 동창은 “지난해 7월 작고한 이숙희는 약대 발전기금으로 본인이 2억 원, 유족이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모교 사랑이 지극한 친구였다”며 “동기들에게는 이숙희가 영원한 이화인이라 그를 기쁘게 추대했다”라고 전했다. 고인도 ‘영원한 이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이숙희 동창 소개에 다들 박수로 환영하며 ‘영원한 이화인’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2시에 열린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에는 30명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영원한 이화인’ 추대 발대식처럼 영상으로 보는 자료 소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졸업 30주년이 된 ‘올해의 이화인’은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창들이 많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기들에 대한 따뜻한 박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초등교육과 1995년 졸업생 이동은 따로 ‘올해의 이화인’을 추대하지 않고 동기 모두가 ‘올해의 이화인’이라는 생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이색적인 기록을 남겼다.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은 모두 투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모교 학위수여복을 예복으로 입기로 결정하였으며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



총동창회 회칙개정위원회 구성 발의

2025년 5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참석 32명, 위임 9명으로 성원이 되어 2025년 5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했다.

이날 안건으로 먼저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 평가 건이 있었다. “전국에서 참석한 선후배들의 좌담을 들어서 좋았으나 간담회의 전달 내용이 올해 사업계획 및 후원과 같은 일상적인 것 이외에도 총동창회에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이나 새로 기획하는 일들에 대한 토의 등이 더 보완되면 좋겠다”(최경임(물리 85) 자연과학대학 회장), “총동창회에서도 어려운 점을 노출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김곡미(디대원 93) 디자인대학원 회장)는 의견이 있었고,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내년에는 총동창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단과대학들과 협의하고 연계해서 새로 창의적인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동창의 날’ 기념식 행사 건에 대해서는 ‘올해의

이화인’은 39명이, ‘영원한 이화인’은 25명이 추대되었고, 예복은 학위수여복 가운, 스틀, 모자를 착용한다고 알려졌다. 올해 10회를 맞는 ‘빛나는 이화인’ 상은 네 명의 후보 중에서 ‘빛나는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추천 자료에 근거하여 진정성 있는 심사를 거쳐 강유순(약학 69) 동창과 이종민(의학 80) 동창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안내하였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지난해에는 대표 연설을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중에서 선정했으나, ‘동창의 날’은 모두의 축제이므로 올해는 졸업 50주년 전체 대표(서양학과 졸업) 및 30주년 전체 대표(제약학과 졸업)로 일반 동창 중에서 선정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피상순 의과대학 회장이 ‘진선미’ 상에 대해 문의하자, 남상택 고문은 “모교 대외협력처의 학교 발전기금 모금 사업에 총 1억 원 이상 후원한 ‘이화아너스클럽’의 기부자에게 ‘진선미’ 상이 해당되는 것이고, 총동창회에서는 매년 5월 ‘동창의 날’에 현업에서 일하는 동창을 대상으로 ‘빛나는 이화인’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11월 ‘이화인의 밤’에서는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이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동창에게 ‘아름다운 이화인’상을 시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가 필요하여 오늘 찬성 여부를 묻고 가한다면 6월에 노정희(법대·법전원 86) 법대·법전원 회장을 중심으로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 개정을 하겠다고 안내하고, 동의 및 재청을 거쳐 의결했다.

또한 최근에 수원 지회 및 정치외교학과 등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동창들로 이루어진 총동창회 법률자문위원 구성을 5월에 진행하여 6월 정기 임원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5월 정기임원회



총동창회 법률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장 수여식

2025년 6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6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참석 33명, 위임 7명).

이날 안건으로 감사찬양예배 및 동창의 날 행사 평가 건이 있었다. 우선 감사찬양예배에 대해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예배 장소를 대학교회로 변경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간이 아늑하고 가득 찬 느낌이 들어 더 좋았다고 평가하고, 특히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우간다 찬양팀의 연주에 대해 민속 타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북을 치며 찬양하는 모습이 매우 역동적이었고, 가슴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선영 선교부장은 예배의 열기가 뜨거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안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배 영상은 곧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임을 안내했다.

‘동창의 날’ 행사 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30주년 및 50주년 재상봉 동창 기념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동창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예전처럼 30주년과 50주년 스티커를 옷에 부착하면 구분이 쉬울 것 같다”(황인희 사교 83, 총동창회 서기)는 의견에 대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과거에 스티커나 팬던트 목걸이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일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하며, 내년에는 그 점을 반영해 개선된 방식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선물 배부는 행사를 마치고 나갈 때 한다는 원칙

에 따르느라 기차표 등 일정에 맞춰 일찍 귀가하는 동창들에게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일부 동창에게는 주소를 적어서 택배로 보내드린 경우도 있으니 차후 융통성 있게 배부하면 좋겠다”(이명경 총동창회장), “한 명을 먼저 주는 순간부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던 경우가 많아 원칙은 지키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안영호 중문 85, 인문대 회장),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은 별도로 선물을 분배해야 한다”(김영주 고문)는 등의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편 합창제에 대해서는 경연이 아닌 축제로 행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대전 지회에서 버스를 대절해 참석했는데 연세가 있는 동창들도 무척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서 그 모습만으로도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하며 “해가 갈수록 합창단원의 수가 늘어나 무대가 더 풍성해지고, 객석에서 보기에 훨씬 좋았다”고 덧붙였다. 김진희(약학 86) 약대 부회장은 “약대에서 총 40명이 참석했는데, 주로 50주년을 맞은 동창 20~30명이 주축이 되어 4월부터 매주 한 번씩 모여 연습했고, 의상까지 멋지게 준비해 무대를 빛냈다”며, “순위를 매기지 않아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고, 7개 팀 모두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정소희(작곡 89) 음악대학 회장은 “합창단원들이 공연을 마치고 기쁜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많은 관객이 함께해 동창들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어 힐링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안영호 인문대 회장은 “합창단원들이 공연을 마친 후 무대에서 내려온 뒤, 포토존을 마련해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더욱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명경 회장은 “내년 합창제에는 꼭 포토존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무대 꽃 장식과 관련해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이경희 문화부장이 양재 꽃시장에서 직접 꽃을 구입해 정성껏 장식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자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다. 이경숙 고문은 “지금껏 참석했던 동창의 날 행사 중 올해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것 같다”며, 특히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고, 모든 공연이 끝난 후에 동창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퇴장하는 모습에서, 총동창회가 점점 안정되고 있음을 느꼈다”며 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칭찬을 전했다. 김영주 고문은 “해마다 날씨에 따라 꽃이 활짝 피는 시기를 맞추기 어렵지만, 올해는 무대 의상과 자잘한 꽃들이 잘 어울렸다”며, “합창은 힘을 모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며, 많은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니 절대로 없애서는 안되는 소중한 전통”이라고 당부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곽은아 부회장이 맡은 합창제 총평에 대해서, 특유의 말솜씨로 웃음과 공감을 자아내며 분위기를 즐겁게 띄워주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내 법적인 문제를 자문하는 경우가 생겨 총동창회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위원장을 맡은 안경희(법대·법전원 86, 국민대 법과대 교수) 동창은 설립 목적에 대하여 “법률자문위원회 규정 1조에 명시된 바 ‘총동창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총동창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법

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법률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동창회에 법률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민사·형사·세무 등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선임하고, 총동창회 임원 중 한 명을 당연직으로 임명하여 총동창회와의 연결한다고 부연했다. 위촉된 법률자문위원은 안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안서연(법대·법전원 02, 변호사)·김점자(법대·법전원 88, 법무사)·김은진(법대·법전원 13, 변호사 겸 노무사)·정다운(법대·법전원 05, 변호사)·이여훈(경영 05, 회계사)·김구슬(법대·법전원 93, 총동창회 재정부장) 동창과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곽지현(법대·법전원 12, 변호사)·강다혜(식영 11, 세무사) 동창 등 9명이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총동창회 회칙개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며 회칙개정 위원회에는 이경숙·남상택 고문, 이명경 총동창회장, 한은주·곽은아 부회장, 노정희 법대·법전원 동창회장, 최희경(법대·법전원 90) 법대·법전원 교수, 박귀천(법대·법전원 95) 교수 및 단과대학 동창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단과대학 위원으로는, 지난번 회칙개정위원이었던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장을 제외하고, 새롭게 의과대학 피상순 의과대학 회장과 이은영(컴공 85) 인공지능대학 회장이 추천되어, 참석자들의 동의를 거쳐 위원으로 가결되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 E-mail : ewhaalum@ewha.ac.kr



모교소식

1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식 개최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식이 5월 30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명수 이사장, 이향숙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및 장상·신인령·이배용·김선옥·김혜숙 전임 총장과 전·현직 동창 국회의원, 근속 교직원 등 내외빈과 재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이화 창립 139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사를 통해 이향숙 총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혁신이 이끄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 이화가 사회적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통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지성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슬로건 ‘새 시대 새 이화: 미래를 이화-하라’는, 변화와 혁신의 상징인 이화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지키면서, 이화가 글로벌 환경과 시대를 통찰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며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임을 밝히고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의 기반 위에서 이화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이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라는 비전하에 수립한 <새 시대 새 이화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계획은 올해 2월 이향숙 총장 취임 이후 각 기관 및 교내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것으로, 5대 전략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 및 경쟁력 제고 ▲AI 시대를 대비하는 고등교육 대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 ▲행정 시스템 혁신 및 캠퍼스 인프라 고도화 ▲이화 브랜드 가치 및 글로벌 위상 제고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5대 전략목표하에 20개 중점과제, 50개 실천과제를 담은 이번 발전계획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모교가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전계획 발표 후에는 근속교직원 표창 및 자랑스러운 이화인, 이화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돼, 모교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130명을 대표해 환경공학과 조경숙(생명 86) 교수, 간호학부 강윤희(간호 94) 교수, 건축팀 심우정 과장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가야금 명인 이영희(사회 62) 동창과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소장 이덕희(사

내외빈과 재학생 등이 참석한 창립기념식



회 63) 동창이 ‘제23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거두어 이화 정신의 귀감이 된 동창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영희 동창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서 국악 예술 발전과 전통문화 전수에 힘썼으며, 국악예술학교 교사로서 후학 양성에 헌신하고,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맡아 국악 보급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덕희 동창은 미주 한인 최초로 호놀룰루시 도시개발기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여년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으며, 이후에는 하와이 독립운동사와 초기 이민사 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어 기독교학과 양현혜(기독 83) 교수와 에코과학부 박중기 교수가 ‘제21회 이화학술상’을 수상했다. ‘이화학술상’은 모교 교수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학문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수여되는 상으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교원포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양현혜 교수는 동아시아 문명 전환기에 기독교가 형성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기능을 조명하는 연구자이자 한국 개신교사 분야의 권위자다. 박중기 교수는 생물다양성·분자계통학·유전체 진화학 분야 대표 학자로, 세계 최초로 국내 주요 해양생물 유전체를 해독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 2 —

법학전문대학원, ‘제14회 변호사시험’ 수석 합격자 배출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철)이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수석 합격자를 비롯한 총 10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로스쿨 14기 최서연(법대·법전원 25) 동창은 총점 1,248.07점을 얻어 수석 합격의 영예를 차지하며 재판연구원에 임용됐다. 또한 14기 강서현(법대·법전원 25, 이하 동일)·권서정·김영옥·김혜진·김채원·박봄들·윤내경·이지순·임은결·장서린 동창도 신입 재판연구원에 임용됐다. 이는 전국 법전원 중 4위에 해당하는 성과로, 이로써 모교 법전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88명에 이른다.

로스쿨 13기 홍나영(법대·법전원 25) 동창과 14기 김오정(법대·법전원 25, 이하 동일)·박민주·소진희·이수빈·인수진·최은선·정다현 동창은 신입 검사에 임용됐으며, 한편 로스쿨 13기 함예진(법대·법전원 25) 동창과 14기 김혜원(법대·법전원 25) 동창은 헌법연구관에 임용됐다.

로스쿨 13기 홍나영(법대·법전원 25) 동창과 14기 김오정(법대·법전원 25, 이하 동일)·박민주·소진희·이수빈·인수진·최은선·정다현 동창은 신입 검사에 임용됐으며, 한편 로스쿨 13기 함예진(법대·법전원 25) 동창과 14기 김혜원(법대·법전원 25) 동창은 헌법연구관에 임용됐다.

— 3 —

여성교육의 역사를 열다— 이화여전·영어영문학과·음악대학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모교는 ‘한국 최초의 여자전문학교’인 이화여자전문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여성 교육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이화여전 당시 함께 창설된 영어영문학과와 음악대학도 나란히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이화여전 100년, 여성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다

1925년 설립된 이화여전은 한국 최초의 여자전문



영어영문학부 100주년 기념식

학교로서, 문과·음악과·가사과를 중심으로 여성들에게 전문적 고등교육을 제공하며 당시 ‘여성 최고 학부’로 불렸다. 일제강점기의 교육 억압 속에서도 이화여전은 여성의 권리와 자립을 위한 지식의 터전이자, 종합대학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진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다. 모교는 4월 24일(목) ‘이화, 한국 여성고등교육의 백년대계’를 주제로 기념예배, 전시, 학술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화여전의 설립 의의와 시대적 역할을 조명했다. 특히 이삼봉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영문과와 음악대학의 초기 역사와 교육 이념을 다룬 발표가 주목받았다.

영어영문, ‘개척한 100년, 개척할 100년’

영어영문학부(학부장 이형숙, 영문 94)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5월 23일(금) ECC 이삼봉홀 및 컨퍼런스홀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영어영문학부의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과 연대를 다지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사장, 이향숙 총장을 비롯해 내외 귀빈, 전·현직 교수, 재학생, 동창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념식과 함께 열린 ‘미래비전 포럼’에서는 AI와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융합을 주제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동창

회 ‘영학회’는 약 12억 2,000만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학과 발전에 기여했다. 이날 3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영학회의 날’ 홈커밍 행사는 영문과 100년의 유산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음악대학, 100주년을 노래하다

음악대학(학장 곽은아, 한음 85)은 5월 21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사장, 이향숙 총장과 장상·이배용·김혜숙 전 총장을 비롯해 학생, 동창 및 이화를 사랑하는 약 2,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모교 음악대학은 지난 3월 미국 랭커스터 감리교회와 뉴욕 카네기홀에서 100주년 기념 연주회를 열어 글로벌 무대에서 모교 음악대학의 위상을 알린 바 있다.

이화의 100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한국 여성의 교육, 문학, 예술을 이끌어온 살아 있는 역사였다. 이화여전을 시작으로 영어영문학부와 음악대학까지 함께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화는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여성교육기관’이라는 비전을 품고 다음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음대 창립 100주년 기념 예술의전당 공연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회장_임복희(행정 93)

신임 학장 취임 축하 난 전달식

3월 21일(금) 오후 2시, 사회과학대학 동창회 회장단은 차은영(경제 85) 신임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내방해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였다. 이에 차은영 학장은 사회과학대학 동창회의 1,000만 원 기금으로 조성된 포스코관 건물 내 재학생들 휴게 공간인 '애플라운지' 소식과 더불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전달식에는 차은영 학장, 이승혁 부학장 및 사회과학대학 각 과 동창회장 조희수(커미부 86)·장지숙(문정 89)·김혜영(사복 87)·라현정(심리 91)·최진경

차은영 신임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내방한 사회과학대학 동창회 회장단



(경제 91) 동창 총 7명이 참석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향후 사회과학대학 발전을 위한 모교와 동창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음악대학

회장_정소희(작곡 89)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개최

3월 17일(월)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5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김정미(성악 89)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약 9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해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였다.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편되며 출발한 음악대학은 여성 전문 연주자 양성, 국악 교육 정착, 오케스트라 창단, 오페라 제작 등 한국 음악 교육의 다양한 변화를 선도해 왔다.

동창들은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며 선교사들에게 받은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음악대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헌신한 수많은 선생님들과 동창 선배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맞이하는 100년의 새로운 비전과 동창회의 역할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또한 노후된 피아노 교체를 위해 5억 원을 기부한 흥한재단 이사장 정소영(피아노 62)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5월 21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에는 음악대학 교수진, 동창, 재학생 등 300명 이상의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예술의전당에서도 이례적인 대규모 행사로 기록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사장, 이향숙 총장과 장상·이배용·김혜숙 전 총장을 비롯해 재학생, 동창



정기총회에 참석한 음악대학 동창들

및 이화를 사랑하는 약 2,000명의 관객들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이날 공연은 클래식과 전통음악, 창작곡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청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공연은 첼로, 호른, 피아노, 거문고, 대금 등 동서양의 악기가 어우러지는 세계 초연작 <이화 랩소디(안현정 작곡)>로 막을 올렸으며, 이화학당 창립자 메리 F. 스크랜튼의 헌신을 담은 소리극 <교육의 불꽃>과 함께 이화학당 6대 당장이자 신촌 캠퍼스 설립에 큰 역할을 한 선교사 앨리스 아펜젤러를 기리는 한국 초연작인 제임스 라(James Ra)의 <크로싱(Crossing)>으로 음악대학의 역사를 조명했다.

이화 동창들로 구성된 100대의 첼로 앙상블 ‘이화첼리’가 선보인 키베·피아졸라(M. Kibbe, A. Piazzolla)의 <두 탱고스(Two Tangos)>는 한국 전통 무용수와 현대 무용수의 조화로온 2인 춤이 어우러져 시각적 예술까지 아우르며 관객의 큰 환호를 받았다. 이어 소프라노 신지화(성악 84) 동창이 이화첼리와 함께 뢰블란(R. Lovland)의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을 노래했다. 이어 이화를 빛낸 작곡가 김순애(음악 41) 동창의 <그대 있음에>를 <이화 있음에>로 개사해 큰 감동을 선사했다.

2부에서는 이화 오케스트라(지휘: 성기선)가 폴랑크(F. Poulenc)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

곡>(피아노:함영림(피아노 80)·계명선(피아노 85)), 사라사테(P. de Sarasate)의 <카르멘 판타지>(바이올린:송지원(관현 13)), 슈베르트(F. Schubert)의 <시편 23편>(합창:이화 콘서트 콰이어), 홀스트(G. Holst)의 <행성>중 <목성(Jupiter)>을 선보였다.

이번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공연은 이화 설립의 초심을 되돌아보고, 지나온 10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에 열린 미국 랭커스터 감리교회와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기념 연주회, 5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사흘간 4회에 걸쳐 음악관 김영의홀에서 열린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오페라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그리고 이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이어 음악대학은 올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의 연주를 계속 이어가며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할 예정이다.

경영대학

회장_김지훈(경영 90)

제4회 이화 경영 함께 걷기 행사

4월 26일(토) 오전에 경영대학 동창회 연례 친목 행사인 제4회 이화 경영 함께 걷기(안산자락길)를 진행하였다. 함께 안산자락길을 걸은 후 이화·신

제4회 이화 경영 함께 걷기 행사에 참석한 경영대학동창들



세계관 1층 경영학과 60주년 기념홀에서 점심식을 하였고, 2024년 활동보고와 결산·인준 그리고 2025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총회를 개최하였다.

2기(65학번)부터 30기(93학번)까지 30여 명의 동창들이 숲속에서 그리고 경영대에서 선후배 간의 온정을 나누며 모교 발전을 도모하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간호대학

회장__정승은(간호 86)

고 이정애 선생님 71주기 추모예배

5월 14일(수)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간호대학 교수, 연구원, 동창, 학생 대표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정애 선생님의 71주기 추모예배가 열렸다. 고 이정애 선생님은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1928년 하와이에서 유학하여 간호학을 전공한 최초의 한국인 간호사로, 1937년에는 영국에서 개최된 ICN 대회에 조선을 대표하는 간호협회 회장으로 공식 참가한 바 있고, 1950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초대 학과장으로 간호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추모예배 후 양식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귀한 만남을 통해 추억을 나누었다.

5월 30일(금) 오후 4시, 헬렌관 116호에서 간호대

정기총회 및 동창 재상봉 환영회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17회·37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은 회장과 임원진, 강윤희(간호 94) 간호대학장을 비롯해 총 78명이 참석하였다. 17·37회 동창 일동은 간호대학 발전을 위해 이화 웨스트 캠퍼스 간호과학관 건축기금과 동창회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명예교수·선후배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17·37회 동창들이 준비한 추억의 자료도 함께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동창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약학대학

회장__황미경(약학 86)

제42회 화합의날 행사

4월 29일(화) 11시 제42회 화합의날 행사가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250여 명의 동창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림픽 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했기에 지하철역에서 행사장으로 가는 길목마다 임원진이 주홍색 조끼를 입고 길안내를 하였다.

1부 행사는 김수경(약학 84) 약대 선교부장의 기도, 황미경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기별 소개와 장기자랑이 있었고, 점심 식사 후에 진행된 2부에서는 임원진의 라인 댄스 〈Sour〉와 행운권 추첨, 교가 제창으로 행사를 마쳤다. 각 기에서 중창, 시낭송, 라인댄스 등 준비한 장기를 선보여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졸업 40주년을 맞는 약학 36회·제약 15회 동창들이 맛있는 도시락과 간식을 준비해 주었고, 졸업 30주년을 맞는 약학 46·제약 25회 동창들이 안내와 선물 포장, 사진 촬영으로 봉사하였



제42회 화합의날 행사에 참석한 약학대학동창들

다. 장기 자랑 1등의 영광은 <아파트> 라인댄스를 멋지게 춘 약학 26회·제약 5회 동창들이 수상하였다. 동창들은 행운권 추첨으로 받은 선물과 봄기운을 가득 담은 작은 모종을 손에 들고 귀가하였다. 매년 화합의날 행사는 전 동창들의 봄 나들이로 자리잡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박경임(식영 73)

아령당에서 정기총회 개최

3월 20일(목) 아령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미형(의직 77) 전임 회장, 박경임 신임 회장, 김숙희(가정 60)·문숙재(가정 68) 교수 등 55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김숙희 교수 축사, 아령회 활동보고, 재무보고 및 각 과 동창회장들의 각 과 활동보고가 있었다. 2년간 아령회를 이끌어온 우미형 전임 회장에게 박경임 신임 회장이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하였으며, 박경임 신임 회장의 인사, 이화발전위원회 학술팀 백종화(가관 86) 동창의 이화발전위원회 포럼 안내, 아령회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순서가 이어졌다.

그리고 모친이 쓰던 귀한 고가구를 아령당에 기부한 김미애(식영 79) 동창의 소개와 말씀이 있었다. 기부한 물품은 12자짜리 장롱, 사방탁자, 문갑 등 고품

격 화류가구 폴세트이다. 수천만 원대 화류가구 세트로 새단장을 한 아령당은 더욱 고풍스럽고 품격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5월 2일(금) 학관 251호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9 이화여대 가정학 100주년 기념포럼 <이로운 선택, 이로운 변화> 1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21세기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가족 연구’를 주제로 21세기 장수, 저출산, AI로부터 오는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는 적절한 우호성과 높은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평범한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키워주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정학의 소명과 역할을 재인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5월 30일(금) 2025 아령회 홈커밍데이 행사가 I-House 이슬랭에서 개최되었다. 졸업 30주년·40주년·50주년 동창들과 2025년 졸업한 동창(식영과 김지애)과 임원 등 92명이 참석하고, 김관지(식영 93) 부총무의 진행으로 박경임 회장의 개회사와 최남숙(가정 65) 전 회장의 격려사, 식영과 1975년 졸업동창(대표 황영자)의 기부금 전달, 아령회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공연, 김규희(식영 93) 동창의 퀴즈, 박경임 회장의 폐회사순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생활환경대학동창들



과(학부)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__현혜경(76)

팔순 모임을 가진 20기 동창들

3월 14일(금)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70여 명의 동창이 모여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장학생으로 선발한 백하원(20학번)·유가현(22학번) 학생의 인사와 더불어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된 이사라(75) 동창의 소개, 2024년 동창회 사업보고, 회계보고와 함께 회칙 개정안 인준이 이루어졌다. 또한 3부는 안성희(88) 동창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행복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어국문학과 동창들



한 시니어' 특강이 진행되었다.

4월 10일(목) 압구정 한일관에서 20기(1969년 졸업) 동창들이 모였다. 20기 동창들은 매달 10일쯤 20여 명이 모이고 있는데, 이날은 8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나이가 믿기지 않는 활기찬 모습으로 담소를 나누며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기쁜 자리에 국문과 동창회장인 현혜경 동창과 사무국장 안성희 동창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20기 동창들은 국문과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함께하기를 고대해 본다.

영어영문학과

회장__정경숙(79)

이화 영어영문 100주년 기념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가 1925년 이화여전의 발족과 함께 설립되어 2025년 창설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영어영문학부는 지금까지 약 1만 명의 학사 졸업생과 660여 명의 석·박사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출판, 문화예술, 언론, 경영, 법조 등 각 계각층에서 활약하며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영어영문학부는 21세기에 들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BK21 학술연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며 학술적 저변을 넓혀 왔고, QS세계 대학 랭킹 상위 100대 영문학과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학문 경쟁력을 입증했다.

100주년을 맞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와 동창회인 영화회는 공동으로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혜원(89))를 구성하고 지난해

부터 다양한 사전행사를 진행해 왔다. '개척한 100년, 개척할 100년: 브레이킹 배리어, 빌딩 드림 (Breaking Barriers, Building Dreams)'의 슬로건 공모전을 시작으로, 영학회 홈커밍 학관 나들이, 분야별 동문 간담회, 국제학술대회 및 기념강좌, 영어연극 동아리 'Beings'의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교수, 동창의 자발적인 참여로 약 12억 2,000만 원 규모의 발전 기금과 장학금이 조성되어 학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

4월 24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ECC 대산갤러리에서 설립 100주년 기념전 '이화, 한국 여성고등교육의 백년대계'를 열었다. 전시는 과거 수학여행, 국군부대 위문행사, 축제, 영학관 생활상을 담은 사진부터 옛날 성적표, 주소록, 영어연극 포스터 등 손때 묻은 물건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온 졸업생들이 출간한 도서들로 꾸며졌다. 이 전시에 호응하여 퇴직한 명예교수들과 해외 동창들까지 추억의 자료를 전달해 주었다. 전시는 이화역사관으로 옮겨 2026년 5월 16일(토)까지 이어진다.

5월 23일(금) 모교 ECC 이삼봉홀 및 컨퍼런스홀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100주년 기념식', '미래비전 포럼', '영학회의 날' 홈커밍 행사로 구성되어,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의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과 연대를 다지는 기념비적인 자리라 되었다.

'100주년 기념식'은 방송인 이숙영(80)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향숙 모교 총장과 한재환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의 축사, 학과의 100년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 상영, 『이화 영어영문학과 100년: 1925~2025』의 출간, '미래100년위원회(대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어영문학과 100주년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하였다

표 유중근(67))의 출범 선언으로 진행되었다. 이화여대 남성교수중창단과 영문학부 재학생이 함께한 축하공연은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 내었다.

이어지는 '미래비전 포럼'에서는 '새로운 백년 앞에서: 이화 영어영문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주제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영어영문학이 AI, 빅데이터, 디지털 인문학 등과 어떻게 융합해 나갈지를 논의하였다. 이화여대 고민희(94) 교수, 세종대 김수연(88) 교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정원(91) 고문, 서울대 김현진 교수, MBC 이경미(04) 기자, 씨네21의 장영엽(08) 대표, 이화여대 최성희(88)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의 미래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였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영학회의 날' 홈커밍 행사는 320여 명의 동창이 함께한 가운데 영학회 부회장인 강명옥(84) 동창과 방송인 황정민(93)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졸업 50주년이 되는 75기가 준비한 합창과 독창, 76기의 난타공연,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축하 공연으로 무대가 떠나갈 듯했다. 또한 여러 동창들의 후원으로 판화를 비롯한 예술작품, 도서, 화장품, 여행 바우처 등이 행운권 선물로 제공되고, 33대 영학회에서 준비한 이화 영

문 100주년을 기념하는 메달이 달린 크로스백과 동창 후원의 피크닉 와인과 주스를 넣은 선물가방, 학교측에서 준비한 『이화 영어영문학과 100년』과 100주년 떡을 넣은 에코백으로 참가자들의 귀가길을 묵직하게 만들었다. 행사장 입구에 위치한 재학생 학생회에서 만든 포토존에서 값진 기념사진을 남기는 동창들의 모습도 정겨웠다.

이화 영어영문의 100주년은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큰 연유로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MBN에 비중 있는 기사로 보도되었다.

독어독문학과

회장 __ 박지나(90)

친목 골프 대회로 유쾌한 시간 가져

3월 27일(목) 강남구 역삼동 강가 레스토랑에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기 간사 모임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 있을 독문과 동창회 행사에 관한 세부적 사항들을 조율하고 동창회 회칙 개정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4월 15일(화)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CC에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친목 골프 대회가 있었다. 야외에서 아름다운 초봄의 자연을 만끽하며 스포츠 정신

으로 운동과 게임도 즐기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식사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명목의 상도 수상하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사학과

회장 __ 최유리(84)

공주, 논산으로 봄 답사

3월 27일(목) 서울 인사동 선천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2025년 중점 활동 목표 및 2025년 동창의 날 '영원한 이화인' 선정, 이화사학연구소 발전기금 출연 계획 그리고 봄 답사와 선배님들의 학창 시절에 대한 구술 채록 및 구술집 발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4월 24일(목) 봄 답사로 공주(무령왕릉과 왕릉원), 논산(돈암서원, 명재고택)을 다니며 백제 웅진시대와 조선시대 유학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였다.

5월 22일(목) 모교 진선미관에 있는 자연섬에서 간사회를 가진 뒤, 이화여자전문학교 설립 100주년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이화역사관 관장 백옥경(85) 동창과 이화역사관 연구원 손현지(01) 동창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모교의 역사에 대해 다시한 번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기 간사 모임에 참석한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앞에서 봄 답사 기념촬영을 한 사학과 동창들



사회복지학과

회장 __ 김혜영(87)

신임 회장과 역대 회장단 만남의 시간

3월 15일(토) 제15대 동창회장을 맡게 된 김혜영 회장이 홍보석에서 역대 회장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었다.

5월 30일(금)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동창의 날 합창제에 사회복지학과 동창들이 사회과학대학 합창팀으로 참여하여 '동행상'을 수상하였다. 곡명은 〈혼자 걷지 않아요〉로 단장 김혜영 동창, 지휘 현리사(92) 동창, 피아노 반주는 양은진(피아노 10) 동창, 바이올린 반주는 황사라(대학원 14) 동창이 수고해 주었다.



동창의 날 합창제에서 사회과학대학 합창팀에 참여한 사회복지학과 동창들

수학과

회장 __ 이홍숙(88)

모교 발전 기금 1억 원 기부

수학과 동창회는 이홍숙(86)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이홍숙 회장은 “모교의 발전을 바라는 수학과 동창들의 마음을 담아 모금했다”며 “이공계 인재의 중요성이 커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수학과 동창들

지는 시대에 이공계인 이향숙 총장님을 필두로 이화여대가 우리 사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금전달식은 5월 29일(목) 모교 본관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수학과 동창회를 대표해 이홍숙 회장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는 이향숙 총장을 비롯해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이혜미 대외협력처부처장이 참석했다.

5월 30일(금) 오전 11시, 종합과학관 B동 102호에서 수학과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수학과장 이윤진(수교 92) 교수와 약 4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신문복(88) 총무의 사회로, 새로 부임한 학과장의 수학과 현황에 대한 소식과 이홍숙 회장의 동창회 활동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후 참석자 전원이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김희연(25) 신입 동창의 환영 인사와 함께 신입 동창을 위한 기념품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서 수학과 동창회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 무대와, 계영희(76) 동창과 부군 임진모 부부의 에어로폰·색소폰 연주가 이어져 분위기를 더욱 빛냈다. 행사 말미에는 정재원(88) 선교부장의 퀴즈 진행으로 경품 수령의 즐거운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물리학과

회장 __ 김수미(90)

물리학과 70년사 기념 아카이브존 볼거리

5월 16일(금)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물리학과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동창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50여 명의 동창들은 이향숙 총장,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 물리학과 교수들, 명예교수 등과 함께 여성 과학도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물리학과의 창립을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물리학과 동창회는 김수미 회장과 차지연(98) 70주년 준비위원장을 주축으로 2024년에 물리학과 창립 7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난 1년간 2,000여 이화 물리학과 졸업생과 학부생, 교수가 모두 함께 하는 여성 물리학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 행사를 준비했다. 이 행사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물리학과 정기총회,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동창의 밤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본격적인 기념식과 동창의 밤에 앞서 진행된 오프닝 타임에는 물리학과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였다. 이삼봉홀 내부 유리벽을 가득 채운 배너는 1965년 창립 이래 배출한 졸업생 단체사진들로 구성되어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학창 시절로 돌아가 그 시절의 '나'를 찾게 했다. 물리학과의 70년사를 기념하는 아카이브존은 참석한 동창들이 '그때 우리들'을 추억할 수 있게 하였다. 동창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물리학과 재학시절 사용했던 물건들로 전시 공간을 채운 아카이브존에서는 6,70년대 입학한 선배의 낡은 패넛트, 빛 바랜 성적표와 장학증서, 실험노트에서부터 80년대 선배들의 학교 수첩, 수영장 회원권, 최근에 졸업한 동창의 과 티셔츠와 양종만 명예교수가 간직하고 있었던 오랜 실험기기와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 등을 전시하여 참

석한 동창들에게 서로 다른 시기지만 같은 공부를 한 경험을 나누고 기억하게 하였다. 또한 이삼봉홀 밖에 설치된 인생네컷 포토존에서는 오랜만에 조우한 동창들과 선후배들이 사진을 찍어 새로운 추억을 나누었다.

기념식에서는 이향숙 총장의 “이화 물리학과와 역사는 한국 여성 기초 과학자의 역사다”라는 축사를 시작으로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 김수미 회장, 이상혁 자연대학장의 축사가 있었다. 물리학과 동창들이 모은 8,000만 원을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으로 이향숙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70년 동안 물리학과 동창회를 이끌어온 동창을 선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물리학과에서는 졸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물리인’ 14인을 선정하여 상패를 전달하였으며, 물리학과 장학기금을 마련해 준 동창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동창의 밤 행사에서는 물리학과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밴드 ‘동물원’과 고연경(05) 동창이 리더로 있는 글로벌 언더그라운드 밴드 ‘러브엑스테레오’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선후배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동시에 이번 행사에서 기부와 후원을 한 동창들과 외부 인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 행사는 1960년대 졸업생부터 2020년대 졸업생까지 함께하며 선후배 간의 연대감과 자부심을 가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생명과학과

회장 __ 황유경(89)

정기총회 열고 신규 임원진 소개

자연대학 생명과학과 이생회 13기(63학번) 모임은 한정식집 서초원에서 매월 첫번째 토요일에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생기발랄한 20대에 만나 80이 넘는 친구가 되었는데, 손자와 손녀들의 재롱이며 건강 얘기 취미 얘기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친구들의 모습과 추억은 이화 교정을 거닐던 시절로 돌아간다. 12명의 이생회 회원들의 모임은 매월 지속될 것이다.

5월 30일(금) 11시 생명과학과 동창회(이생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모교 자연사박물관 4층에서 17기 안정숙(70) 동창부터 37기 박윤희(91) 동창까지 30여 명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남숙(77) 동창과 박성순(79) 동창은 이대 교수로 재직하여 제자들과 반갑게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이생회 사업보고와 회계년도 결산과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받았다. 임기를 마치는 임원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황유경 신임 회장을 비롯한 신규 임원진의 소개가 있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이생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선후배 간의 멘토·멘티 활동(이화 바이오 브리지, EBB)을 활성화 하는 것과 생명과학과 발전기금모금을 독려하였다. 이생회 활동을 위해 학부생과의 접촉을 다각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생회를 위해 기꺼이 후원해 준 한인원(74) 동창 외 20명의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에서 총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박중기 관장님과 서수연(96) 박사, 이



꾸준한 교제를 이어오고 있는 이생회 13기 모임 동창들

생회 후배와 담당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사이버보안학과

회장 __ 김연희(21)

동창회 정식 설립

이화여자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가 지난 2월 동창회를 정식으로 설립했다. 2017년 첫 신입생을 맞이한 사이버보안학과는 올해로 9주년을 맞았으며, 졸업생들은 사이버보안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활약하고 있다. 이번 동창회 설립은 학과 동창과 이화여자대학교 전체 동창 선배들의 따뜻한 환영과 지지 속에서 이뤄졌다. 준비 과정에서는 인공지능대학 동창회 임원진과 총동창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힘을 보탤었다.

사이버보안학과 초대 동창회장을 맡은 김연희 동

사이버보안학과 17학번 동창들의 졸업 사진



창은 “선배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함께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동창회가 졸업생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학과와 모교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운영진은 부회장 최예진(22) 동창, 총무 김채연(24) 동창, 회계 김서현(24) 동창, 서기 이은빈(23, 기대표 겸임)·장보민(22) 동창, 기대표 김준선(21)·이주은(22)·최예원(24)·김가영(25) 동창이다.

성악과

회장 __ 진경진(88)

성악과 후배들에게 장학금 수여

진경진 회장은 음대 100주년을 맞아 성악과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외부 장학재단(보성교 우장학재단)에 요청하여 300만 원의 장학금을 확보해서 1인당 100만 원씩,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성악과 대학원생 이운재(24), 3학년 전소민, 2학년 최서연 학생이며, 장학증서 전달식은 4월 16일(수) 음악대학 오페라실에서 개최되었다. 진경진 회장은 앞으로 성악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학금

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동양화과

회장 __ 김지연(93)

비전 이화 미술인 전과 메이데이전 응원

3월 25일(화)부터 29일(토)까지 조형대학 동창회인 녹미회에서 ‘제17회 비전 이화 미술인 전’을 개최하였다. 2024년도 우수 졸업작품 초대전인 이 전시는 각 과에 한 명씩 참가하는데 동양화과에서는 오소정(25) 동창이 선발되었다. 오소정 동창은 작업에 대해 말하기를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누구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 일상의 공간을 재구성해 감정과 감각이 담긴 정서적 풍경을 창조한다. 이는 현실과 환상을 결합한 심미적 휴식처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안락한 탈출구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5월 27일(화)부터 열리는 3학년 학생들의 전시인 메이데이전은 자유롭고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동창회 임원들이 오프닝에 참석하여 출품한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였다.

성악과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진경진 회장



제17회 비전 이화 미술인 전에 선발된 오소정 동창



제49회 이서전 개최

3월 7일(금)부터 15일(토)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3층 6전시실에서 제49회 이서전을 개최하였다. 이서전은 모교 서양화과 동창회가 격년으로 주최하는 동문전이며, 올해 이서전은 미대(예림원)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열려 더욱 뜻깊다. 그래서 이번 이서전은 'Tabula Rasa: 시대를 그리다'라는 주제를 채택하여 서양화과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경험주의 철학자 존 로크의 백지설을 가리키는 'Tabula Rasa'라는 키워드를 통해 서양화과 학생들의 전문성과 정체성 형성에 이화여대 미술대학이 끼친 영향을 확인하고, '시대'라는 키워드를 통해 서양화과의 80년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이서전에는 제1회 졸업생부터 올해 졸업하는 동창까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약 124명의 서양화과 동창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상징적인 '시대별 키워드'를 정해서 작품작을 정렬한 점이다. 예를 들어, 1945~59년의 키워드는 'Pioneers'로, 1960년대의 키워드는 'Identity in Transition'으로, 1990~2025년의 키워드는 'Beyond Boundaries' 등으로 정하여 전시장의 시대별 섹션마다 해당 키워드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예술의 전당 전시실 안에 별도의 유리장을 설치하여 1~2회 졸업생들(신금례·한진수(49), 이경순(50))의 개인전 도록들과 과거 이서전 도록들을 모아 전시하고, 1~2회 졸업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전시실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여 서양화과 및 이서전의 역사를 각인하고자 하였다.

이번 이서전은 2월 18일(화)부터 26일(수)까지



제49회 이서전에 참여한 서양화과 동창들

LA 사토 갤러리에서 열린 'Beyond the Visible'과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2023년 제48회 이서전부터 도입된 미국과 캐나다 거주 서양화과 동창 전시회가 올해에는 국내와 미주의 서양화과 동창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해외 이서전'으로 확장된 것이다. 또한, 작년과 올해 우수 졸업작품에 선정된 '비전 이화 미술인 전' 수상자들도 참여하여 서양화과의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3월 7일(금)에 열린 전시 개막식은 서양화과 동창들과 관람객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전시 기간 중 약 2,450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감으로써 서양화과 동창들의 예술의 열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전시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서양화과 동창회 현 임원진(회장: 안혜리, 부회장: 김지은(91)·나인하(91)·박형주(91)·장수임(92), 총무이사: 정선주(94), 홍보이사: 조현·한남주(92), 기획이사: 최지인(99)·이윤정(90), 운영이사: 손인선·이은주(91)·김수현(07), 서기이사: 조상은(93), 재무이사: 정혜나(94))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5월 30일(금) 동창의 날 모교 대강당에서 거행된 추대식에는 서양화과 동창회 임원진(안혜리 회장, 나인하 부회장, 조상은 서기이사)이 참석하여 축하의 화환을 전달하였다.

조소과

회장__김 연(91)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안건 논의

3월 25일(화)부터 29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도 우수 졸업작품 초대전 '제17회 비전 이화 미술인 전'에 이주는 동창이 선정되었다. 전시 오프닝에는 조소과 동창회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전시를 축하하고 격려하였다.

조소과 동창회의 2025년 제1차 운영위원회가 4월 28일(월) 인사동 안동국사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 1월 국제조각페스타 동창회 부스 참여에 관한 안, 제41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계획 및 준비 안, 워크샵(특강) 진행에 관한 안이 있었다. 또한 회원 주소, 연락처 정비와 재정후원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참석자: 황지선(74), 심부섭(76), 고혜숙(77), 임영란(78), 김종희(79), 이선화(81), 최은경(79), 나진숙(84), 오주연(90), 김 연(91), 이운정(91)/임원: 김순임(02), 이수원(12), 이은이(92), 박정향(15), 도정운(24))

조형예술대학 신축기금마련 특별전시 '예림80'과 '2025 메이데이 전시'가 5월 27일(화)부터 6월 1일(일)까지 조형예술관에서 개최되었다. 퇴임 교수님들과 현직 교·강사 및 동창과 석·박사 작가들이 참

여한 '예림80' 전에는 박일순(74), 최은경(79), 손정은(92), 이은이(92), 신혜용(94), 정민희(94), 이지운(95), 허유정(95), 홍유영(98), 강선구(99), 신혜진(00), 김혜원(01), 장유정(02), 이수원(12), 한지수(13), 조우빈(17), 김보경(19), 김진선(19), 이주혜(23), 도정운(24), 김은영(24), 박지원(대학원 재학), 이용현(대학원 22) 총 23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창립 제139주년 동창의 날 행사에는 오주연(90) 전 회장, 이은이(92)·윤수진(01) 홍보와 동기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섬유예술과

회장__이상영(94)

회장단 회의 갖고 심도 있는 대화

예미회 회장단 회의가 3월 30일(일) 오미가에서 있었다. 1998년에 시작한 이화 섬유예술전이 2026년을 맞아 10회가 된다. 10회 전시 준비에 대한 회의로 역대 회장단들은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예림원에서 시작한 자수과의 정통성과 발전된 현대섬유예술을 잇는 기획을 계획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SIAC총장이 된 자랑스러운 이지선(96) 동창과의 만남이 있었다. 회장단은 이지선

비전 이화 미술인 전에 선발된 이주는 동창과 조소과 동창회 임원들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동창에게 공적패 전달과 함께 안부와 격려, 노고에 대한 칭찬 등을 아끼지 않았으며, 섬유예술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창 선후배들은 이화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유예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석자: 이효범(61), 김혜순(66), 오복환(66), 이상복(67), 윤귀영(71), 장영란(77), 이상미(88), 전영선(88), 이상영(94), 이지선(96)

장식미술과-공간디자인

회장 __ 이경수(92)

서울클럽에서 공간디자인전공 동창회

5월 23일(금)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동창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동창들에게 한국 최초로 이케아 코리아와 MOU를 체결한 학과 소식과 디자인대학원의 라이프스타일디자인전공 신설 소식을 전했다. 또한 2025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추대한 최순희(75) 동창의 '영원한 이화인', 김소형(95) 동창의 '올해의 이화인' 추대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바쁜 중에 모인 60여 명의 동창들이 맛있는 식사와 함께 별빛매직경품쇼를 진행하며 선후배 간의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식미술과 공간디자인전공 동창회에 참석한 동창들



장식미술과-패션디자인

회장 __ 한정아(96)

메이데이 전시에 참석하여 후배들 응원

모교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이 6월 7일(토)부터 14일(토)까지 ECC 대산갤러리에서 메이데이 전시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창작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6월 7일(토) 5시, 대산갤러리에서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패션디자인과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함께했다. 김혜연(79) 패션디자인과 명예교수, 김정혜(80) 패션디자인과 명예교수, 박선희(88) 패션디자인과 교수, 이세리(대학원 01) 패션디자인과 교수, 한정아 회장님, 이재민(00) 부회장, 김수영(01) 총무 등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응원하였다.



2025 메이데이 전시 오프닝 행사

도예과

회장 __ 정호정(90)

'예림80' 전시에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17회 비전 이화 미술인 전에 허지윤(25) 동창이 선발되어 도자조형물과 설치 작품을 전시하였다.



조형예술대학 설립 80주년 기념 기금마련 전시 '예림80' 오프닝

조형예술대학 설립 80주년 기념 기금마련 전시 '예림80'이 5월 27일(화)부터 6월 1일(일)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도자예술전공에서는 30명 가량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명예교수와 교수, 석·박사 재학생, 도예과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전공 학부 3학년 학생들의 메이데이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전시는 '예림80'과 같은 기간 진행되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

무용과

회장 __한명옥(79)

제2회 <댄스 커렌트 이화>

5월 30일(금) 동창의 날 행사에 앞서 오전 11시, 무용관(토머스홀)에서 '무용과 9기(1975년 졸업)와 29기(1995년 졸업)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년의 차이를 넘어 무용과 동창이자 예술계 선후배들이 화합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으며, 무용과 동창회 주요행사 안내 및 보고도 이뤄졌다. 행사는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에 대한 축하와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무용과의 27기인 89학번(1993년 졸업) 동창들로 구성된 '팔구27 Collective'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



<댄스 커렌트 이화> 공연장을 찾은 무용과 동창들

과 졸업생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동창 무용가들의 우수한 역량을 선보이는 공연 <댄스 커렌트 이화>를 4월 29일(화)부터 30일(수)까지 서울 창무포스트극장에서 개최했다.

이 공연은 지난해 출범하여 올해 2회를 맞았으며, 공연 수익금을 모아 이듬해 동창 무용가 1인에게 창작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그 첫 수혜자로 김수정(96, 이스라엘 키부츠무용단 단원) 동창이 선정되었으며 공연 전 전달식을 가졌다.

4월 29일(화)에는 임현선(77)·서영남(78)·이애현(82)·황미숙(84)·김원(85) 동창이, 30일(수)에는 윤수미(91)·김지영(90)·김수정(96)·임선영(97)·백연(03) 동창이 각자의 작품을 선보였다.

유아교육과

회장 __황혜현(90)

스승의 날 행사로 사제 간에 뜻깊은 시간

5월 10일(토) 서울 한정식집 달개비에서 퇴직 은사님과 현직 교수님을 초청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전·현직 동창회 임원들과 졸업 30주년을 맞아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유재경(95) 동창이 참석하였고, 은사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를 전했다.

1부는 방은정(91) 부회장의 사회와 최혜영(89)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황혜현 회장의 감사 인사, 선물 증정으로 진행되었다. 2부 식사 이후에는 이은화(59) 은사님의 육성 녹음 덕담과 사제 간에 화기애애한 담소와 추억을 나누었다.

5월 30일(금) 이화 창립 139주년 동창의 날 기념 식에서 졸업 50주년 동창 중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인 오승희(75) 동창이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되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를 받았다. 또한, 졸업 30주년 동창 중 유아교육 후학 양성으로 공헌한 유재경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되어 함께 축하를 받았다.



동창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국제사무학과 동창들

특강을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60%가 넘는 당첨 확률의 행운권 추첨은 40기 박지선 회계의 재치 넘치는 진행으로 모두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멋진 피날레를 장식했다.



은사님을 모시고 스승의 날 행사를 가진 유아교육과 동창들

국제사무학과

회장 __ 이지현(86)

신입 동창 환영과 격려금 전달

4월 19일(토)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국제사무학과 동창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가졌다. 29명의 신입 동창이 동창회에 새로운 멤버로 들어왔고 동창회에서는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4기부터 54기까지 50명의 동창들이 모여서 돈독한 선후배의 정을 나누었고, 삼성생명 김규현 세무사를 초빙해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가정관리학과

회장 __ 이향진(87)

2025년 첫 임원회의의 갖고 의견 나뉘

4월 18일(금) 서울로인 서울숲점에서 2025년 첫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번 임원회의에는 9명의 임원이 참석해 이가회 펀드 모집, 스승의 날 선물, 가정관리학과 60주년 행사 등 2025년 이가회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임원회의 후 완연한 봄을 맞이한 서울숲을 산책하면서 담소와 티타임을 가졌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가정관리학과 동창들



지 회 소 식

남가주(LA) 지회

회장 __ 조혜진(장미 89)

뉴욕 카네기홀에서 음악회 참관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음악대학 100주년 기념 음악회 참관과 응원을 위해 남가주 지회 동창 9명이 뜻깊은 여행을 떠났다.

3월 1일(토) 한국에서 온 연주단과 함께 1886년 메리 스크랜튼 여사를 한국에 파견해 이화학당을 세울 수 있게 한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가 있는 랭커스터 투어를 떠났다. 아담한 그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이화와의 인연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나라에 오신 스크

뉴욕 카네기홀에서 음악회를 참관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랜튼 여사의 희생과 봉사로 이화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그 정신을 계승해 오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3월 2일(일)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연주가 있었다. 연주 후 한국에서 방문한 연주단 및 현지 연주자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도 가졌다.

3월 10일(월) 김주경(관현 77) 동창의 집에서 한의사 남궁봉일(체육 81) 동창의 재능 기부로 공진단 클래스를 개최했다. 수익금은 동창회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4월 5일(토)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주관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이화여대 상-Young Girl's Award'을 시상하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왔다. 이화 정신을 본받아 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후원해 오고 있다.

4월 30일(수) 1월에 남가주에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문인순(생미 68)·조선희(약대 65입)·홍중화(제약 72) 동창에게 재난 구호 기금을 전달하였다. 모금된 총액은 1만 4,000달러이며 그중 타 지회(뉴욕, 디트로이트, 북가주, 세인트루이스, 애틀랜타, 일리노이, 필라델피아, 휴스턴) 및 타 주 동창들이 보내준 기금이 9,560달러나 되어 더욱 감동이 있었다. 구호 기금을 전달받은 세 동창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준 동창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뉴욕 지회

회장 __ 김영신(독문 88)

바비큐 파티와 바자회

3월 2일(일), 음악대학 100주년을 기념하여 카네기홀에서 뜻깊은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모교 음악대학이 주최하고 뉴욕 동창회가 후원하였다. 음악회 당일에는 이해경(음악 50) 동창과 김의



Ewha Happy Hour 모임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인당뮤지엄에서 월례회 모임을 가진 대구 지회 동창들

환 뉴욕 총영사가 축사를 해주었으며, 이보영(음악 56)·백낙정(음악 59) 동창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음악회는 ‘감사의 선물(Giving Thanks)’이라는 주제로, 이화에 헌신한 미국 선교사 앨리스 아펜젤러의 업적을 기리고자 마련되었다. 공연 수익금은 ‘I Have a Dream’과 ‘Education Through Music’ 재단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기부되었다.

3월 13일(목) 2025 Ewha Happy Hour가 열렸다. 맨해튼의 야경을 배경으로 약 30명의 20-30대 동창들이 소중한 인연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월 31일(토) 세인트 앤드류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바비큐 파티와 바자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해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바자회에 출품된 다양한 물품을 구경하였다. 바자회 수익금은 7월 예정된 몸보신 데이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 지회

회장 — 권애실(불문 82)

인당뮤지엄에서 남성희 동창의 전시 관람

대구 지회 동창들은 5월 23일(금) 인당뮤지엄에서 월례회를 갖고 남성희(커미부 78) 동창의

‘SUPPORTS/SURFACES: 쉬포르/쉬르파스전’ (5월 14일(수)부터 8월 23일(토)까지)을 관람하며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인 남성희 동창은 1970년대 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미술 운동이 ‘쉬포르/쉬르파스’를 한국 최초로 전체적으로 조망한 대구모 기획전시를 열었다.

볼티모어 지회

회장 — 김영진(의직 80)

6월 정기모임 성황리에 개최

6월 4일(수)에 열린 정기모임에 총 26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김영진 회장의 개회 선언 후 모교와 동창회 소식이 공유됐다. 10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소식이 전해졌다. 참가를 원하는 동창들은 회장에게 신청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됐다.

손형란(화학 73) 동창 식사 기도 후에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회장의 제안으로 각자의 학번, 전공, 이름과 함께 최근의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홍경주(약학 62) 동창은 볼티모어 지회의 발자취를 소개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1983년 김옥길 총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볼티모어 지회는 몇 차례의 부침을 겪었지만, 이제는 굳건히



6월 정기 모임에 참석한 볼티모어 지회 동창들

뿌리내린 동창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마지막 순서로 권혜원(화학 91) 동창의 ChatGPT 강의가 진행됐다. 스마트폰에 ChatGPT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실제 활용법, 관련 동영상 소개까지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강의였다. 권혜원 부회장과 따님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가 쏟아졌다.

한편 새 동창회 임원진이 선출됐다. 권혜원 동창이 부회장을, 지명희(제약 71) 동창과 최선희(체육 77) 동창이 회계 담당을 맡아 주기로 했다.

지명희 동창의 제안으로 '수다광장'이라는 새로운 모임이 시작될 예정이다. 1년에 두 번 만나는 것이 아쉽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매달 첫 번째 수요일마다 친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의 세심한 준비가 돋보였다. 멋진 배너를 준비해 동창들이 함께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고, 큰 화면을 통해 모교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며 추억을 되새기고, ChatGPT 강의 또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시애틀 지회

회장 _ 김희정(영문 83)

‘건강 백세 가즈아’ 행사

4월 19일(토), 지회 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봄맞이

이화장터’가 김희정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푸짐한 먹거리와 가방, 모자, 냄비집게, 수세미 등의 수공예품들, 그리고 이화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상품들이 장터에 나왔고, 30명의 동창들이 참여한 가운데 3,000달러 목표액을 무난히 채울 수 있었다. 수익금은 동창회 활동을 위해 값지게 쓰여질 예정이다.

5월 12일(월), 합동 팔순잔치 일명 ‘건강 백세 가즈아’ 행사가 김희정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80세 이상 선배들의 생일을 합동으로 챙기며, 건강 백세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였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케이크 커팅을 하는 선배들을 위해 이화하모니 합창단은 〈목련화〉와 〈내 나이가 어때서〉를 선사하였고, 잔치국수와 다과를 함께 하며 덕담을 나누다 보니 선후배 간의 정이 한층 더 돈독해짐을 느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전문사진사가 출동하였고 다양한 포즈의 사진들로 인증샷을 남기며 잔치는 즐겁게 마무리됐다.



합동 팔순잔치로 축하의 시간을 가진 시애틀 지회

시카고 지회

회장 _ 최지숙(무용 83)

총회에서 차기 회장 인준

5월 3일(토) 60여 명의 동창들과 함께 나일즈에 위치한 BBQ 가든 식당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년간 수고해준 이혜숙(생명 81) 전임 회장의 이



총회에 참석한 시카고 지회 동창들

임식이 열렸고, 초대 강사로 척추전문의 한창용 박사를 모시고 'Healthy Aging through Gentle Movement'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최지숙 동창을 인준하여 새로운 임원단이 7월 1일(화)자로 출범하게 되었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 __ 차희숙(체육 77)

봄맞이 문화탐방

4월 13일(일) 25명의 동창들이 미국 첫 전사를 갖는 한국의 원로화가 김종학 작가의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하이뮤지엄으로 향했다. 동창들은 나들이 겸 소풍 가는 기분으로 임원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출발하였다.

뮤지엄 입구에 들어선 순간 화려한 풍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김종학 작가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하이뮤지엄을 방문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받았고, 특히 설악산 사철 풍경을 담은 작품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이런 귀한 이벤트를 주선하여 준 동창회 임원들에게 동창들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영국 지회

회장 __ 김리리(중문 04)

명이 번개로 한국의 정 나눠

4월의 끝자락, 명이철을 맞아 비공식 명이 파기 번개가 문현수(체육 70) 동창의 집에서 있었다. 따뜻하게 동창들을 맞이해 준 문현수 동창은 정원 끝자락에 무성하게 자라 있는 명이 밭으로 동창들을 안내했다. 담소를 나누며 한 봉지 가득 명이를 판 후, 문현수 동창과 하와이에서 잠시 방문 중인 이대 동창 여동생이 손수 준비해준 귀한 매생이국을 시작으로 파스타 3종, 모두가 극찬한 가지요리, 카프레제 샐러드, 새우 구이 등과 함께 머나먼 영국에서 푸짐한 한국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후식으로 준비된 상큼한 과일샐러드와 현재 런던에서 주문제작 케이크 샵 'Soop(쑤)'을 운영 중인 김수주(섬예 05) 동창의 한국식 생크림 케이크를 먹으며 30여 년에 걸친 각기 다른 시절 이대 교정에서의 추억을 나누며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이지은(불문 96)

훈훈했던 'Happy 80+' 행사

4월 26일(토) 'Happy 80+' 행사를 이윤진(불문

94) 동창 자택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연세가 80세 이상인 동창 18명을 포함하여 약 3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참석한 동창들은 담소를 나누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또한 지영자(체육 72) 동창이 직접 준비해온 아름다운 꽃병을 80+ 동창들에게 선물하였다.

5월 17일(토)에는 버지니아 Lake Fairfax 공원에서 '봄 야유회'를 가졌다. 46명의 동창들과 가족들이 참석하였으며,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교가 제창, 자기 소개를 하였다. 이명지(영문 67) 동창의 식사기도와 함께 점심 도시락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선영(심리 09) 문화부장의 진행 아래 다양한 게임을 즐겼다. 10월에 개최되는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회보를 배포하였고, 이영주(간호 72) 동창이 직접 만든 청국장을 동창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지는 회장의 마무리 인사로 피크닉을 마무리하였다.



봄 야유회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일리노이 지회

회장 _ 서석영(정의 94)

세미나 및 봄 바비큐 파티 개최

4월 7일(월) 교양강의 시리즈로 'Korean Art at



2025년 봄 바비큐 파티에 참석한 일리노이 지회 동창과 가족들

the Art Institute of Chicago'를 주제로 시카고 미술관의 첫 한국미술 담당 큐레이터로 재직 중인 지연수(영문 92) 동창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이 강의에 20여 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여 한국 미술 및 전시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4월 22일(화) 커리어톡 시리즈로 'Beyond Nursing: Careers in Health Science'를 주제로 GSK에서 Epidemiology R&D를 담당하는 박지혜(간호 12) 동창 및 Illinois State University에서 간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은(간호 01) 동창이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다. Loyola University of Chicago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공부하는 이수연(간호 10) 동창의 사회로 간호 현장, 기업, 학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5월 3일(토)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600 N Fairbanks Ct의 루프 탑에서 봄 바비큐 파티를 진행했다. 총 40명의 동창과 가족이 함께하였으며, 또한 사임하게 된 이혜원(경제 20) 제2 회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장혜주(영교 01)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도 소집하여 김태영(커미부 07) 장학/후원위원장이 마련한 장학사업 초안에 대해 논의 및 가결하고, 2025 EIL Conference Travel Grant(이화 일리노이 학술대회 참가 지원금)을 공지 및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회 홍보를 위해 5월 17일(토)

Glenview에서 개최된 Run For Love 한인 마라톤 행사를 후원하였다.

토론토 지회

회장 __ 조혜라(영문 96)

모임은 즐겁고, 예배는 깊다

3월 15일(토)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기타반, 워십댄스반, 합창반 등 각 동호회가 준비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매일 꾸준히 연습한 동창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시간이었다. 동창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바자회도 열렸고, 그 수익은 지역사회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쓰였다. 장학부의 의미 있는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5월 3일(토) 햇불회 예배로 모였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김성란(기독 95)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다. 예배 후에는 이화 비빔밥으로 점심을 나누며 교제했다.

올해는 세대를 아우르며 꾸준히 성장하는 동창회를 꿈꿔본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토론토 지회 동창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이교연(영교 70)

북클럽 프로그램 진행

4월 5일(토) 9명의 동창이 서라벌 회관에 모여 점심 식사 후 북클럽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오성실(영문 68) 동창은 신현철 시인의 「어머니」란 제목의 시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읽어 듣는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하였다. 한편 김영애(국문 62) 동창은 독후감과 함께 추천도서로 간단한 책을 택하려면 『Cup Cake Cafe』, 마음 풀이하며 읽으려면 『I am Son of Hamas』, 전통 미국 사람의 생활을 알려면 컨트리 뮤직 가수인 돌리 파튼의 자서전을 읽기를 추천하였다. 이교연 회장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자가 주도하여 추진한 사막 위에 세워질 2K에 달하는 환상의 유리도시인 네움 시티와 그 위성도시의 건설 현황 및 그 미래를 사진과 함께 그려보았다.

5월 12일(월) 이사회 모임에서는 5명의 이사가 모여 이웃돕기 프로그램으로 이상조 목사가 추진하는 Goahead 사역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1,000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사역은 아프리카 우간다, 인도, 네팔 등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옷, 신발,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미자립 교회 사역자들의 자녀들도 후원하고 있다.

북클럽 모임을 가진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홍콩 지회

회장 __ 최성희(정의 87)

새로운 회장, 총무 선임

1월 1일(수) 최성희 동창이 회장으로, 백지수(의직 13) 동창이 총무로 선임되었다.

3월 중순, 고국에서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을 휩쓴 불길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본 홍콩 지회 동창들은 산불 피해 긴급 모금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4월 8일(화), 7만 홍콩 달러(한화 약 1,300만 원)의 정성을 모아 전국재난구호협회로 전달했다.

최성희 회장은 이화의 유대를 더욱 넓히고자 한인 저널을 통해 동창회 모임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결과 20명의 새로운 동창이 홍콩 지회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9일(수), 최명성(교공 76) 동창이 새 동창들을 환대하며 정성스러운 자리를 마련했다. 홍콩 센트럴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Chariot Club. 이곳에서 12명의 동창이 모여 따뜻한 담소를 나누었다. 새로운 동창들의 유입은 홍콩 지회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화인들의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5월 8일(목), 최성희 회장의 따뜻한 초청으로 홍콩의 Pacific Club에서 동창회 정기 모임이 열렸다. 10명의 이화인들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홍콩 침사추

이의 전망을 바라보며 온기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홍콩에서 펼쳐질 앞으로의 활발한 동창회 활동은 우리의 마음에 신선한 바람이 되어줄 것이다.

휴스턴 지회

회장 __ 이은경(사교 92)

바자회와 장학금 수여식

3월 7일(금)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봉사자:만두팀 11명, 빈대떡팀6명/구매자:28명)를 열었다. 동창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두, 녹두 빈대떡, 그리고 손수 만든 맛간장을 판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바자회는 단순한 기금 모금을 넘어, 선후배 간의 따뜻한 교류와 공동체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과 여러 동창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5월 17일(토)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참석자:동창 12명, 학생과 학생 가족 7명, 기자 2명)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희채(영문 72) 장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선발한 두 명의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여식에는 장학생들의 가족과 여러 동창들이 함께 자리해, 축하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고국의 화재 소식에 긴급 모금을 진행한 홍콩 지회 동창들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과 장학생들



장성숙(약학 61) 동창

장성숙 동창이 4월 22일(화) 모교에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기금 5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장성숙 동창은 이외에도 이화국제재단에 장학금 50만 달러, 연구 기금 50만 달러 등 총 150만 달러를 쾌척했다.

송창주(가정 62) 동창

제24회 유관순상 수상자인 송창주 이준열사기념관장이 상금 5,000만 원 전액을 모교인 이화여자고등학교의 유관순 기금에 기부했다. 이 돈은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의 개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송창주 동창

김영기(영문 63) 동창

김영기 동창과 배우자 베르트랑 르노 박사의 기부로 제정된 '제1회 김·르노(Kim-Renaud) 인문과학 연구상' 시상식이 5월 22일(목) 모교 본관 접견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영기 동창은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로 32년간 재직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헌신했고, 은퇴 후에도 기부와 참여를 이어가며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영기 동창

최구자(서양 65) 동창

2025년 고양시 문화재단 주최 '겹, 틈, 겹' 미술축제의 서양화 추상 부문에 선정되어 4월 30일(수)부터 6월 11일(수)까지 고양 아람누리미술관 대전시장에서 전시하였다. 또한 5월 26일(월)부터 6월 8일(일)



최구자 동창

까지 초대 개인전을 마리나갤러리에서 열었다.

원문자(동양 66) 동창

모교 명예교수인 원문자 동창이 3월 4일(화)부터 28일(금)까지 삼청동 갤러리1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 작품은 포토아트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술장르이자, 유희가 승화되어 정신적인 자유로움에 도달하는 소요유의 현장이다.



원문자 동창

김동우(교공 67) 동창

미국에 거주 중인 김동우 동창이 모교에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기금 10억 원을 기부하였다.



김동우 동창

심상옥(교육 68) 동창

시인 심상옥 동창이 국제PEN한국본부 제37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4년이다.

김정혜(의학 70) 동창

김정혜 동창이 모교에 장학금 36만 4,000달러를 기부하였다. 김정혜 동창은 2010년 '백분의일 나눔 장학금' 기부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김정혜 장학금'을 신설하고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김정혜 동창

김화숙(무용 71) 동창

'김화숙&현대무용단 사포'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김화숙 동창은 5월 17일(토), 18일(일), 24일(토), 25일



김화숙 동창

(일) 남원시 사매면 서도역에서 <다시 간이역에서>를 공연했다.

김주희(서양 72) 동창

6월 4일(수)부터 15일(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6-10전시실에서 열린 '격물개신'전에 참가하였다.

한은실(기독 72) 동창

한은실 동창은 국제옥수수재단(ICF)의 '화이트 골드' 국민 운동에 참여하여 몽골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고 이숙희(제약 75) 동창

3월 10일(월) 고 이숙희 동창의 유가족이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을 위한 기금 5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였다. 고 이숙희 동창은 생전 약학대학 기금 2억 원을 기부했는데, 고인 별세 후 유가족이 그 뜻을 이어 3억 원을 추가 기부한 것이다. 한편 고 이숙희 동창은 2025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되었다.



고 이숙희 동창

계영희(수학 76) 동창

2025년 대한수학회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수학 교육 및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인재 양성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계영희 동창

이혜원(조소 76) 동창

5월 2일(금)부터 14일(수)까지 잇다스페이스 작은미술관에서 '자연-벗이 되다' 초대전을 가졌다.

박상숙(조소 77) 동창

4월 30일(수)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1호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 호서대학교 총장 및 미술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였다.



박상숙 동창

장영란(섬예 77) 동창

장영란 동창이 제25대 한국공예가협회 이사장으로 재선출되었다. 한편 한국공예가협회는 국가 예산 지원 대상 단체로 최종 선정되어 '2025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공예 교류전'을 7월 8일(화)부터 일본 교토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장영란 동창은 협회 임원진들과 함께 전시 오프닝에 참석하였다.



장영란 동창

김나영(김미옥, 철학 78) 동창

아리 공연단 단장 김나영 동창은 5월 8일(목) 봉산 페스타에 참가하여 세계 12개국의 공연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다.

오혜숙(의학 78) 동창

5월 13일(화)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기금 5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였다. 오 동창은 1994년부터 장학 후원, 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 발전 등의 기부를 이어 왔다. 특히 이대 서울병원 설립 당시 고액을 기부해 병원 내 '오혜숙홀'이 조성되기도 했다.



오혜숙 동창

이노연(무용 78) 동창

이노연무용단 예술감독인 이노연 동창은 2월 28일(금) 오후 7시 전 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이팔청춘 이팔청춘>을 공연했다. 이번 무대에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학교에서 진행한 진도북놀이 수강생들의 성과를 선보였다.



이노연 동창

이은영(동양 78) 동창

5월 22일(목)부터 28일(수)까지 삼청동 한벽원미술관에서 '사경: 사색하며 그리다'전을 열었다. 이은영 동창은 새를 통해 자유에 대해



이은영 동창

갈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냄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담았다.

정현숙(서양 78) 동창

5월 27일(화)부터 6월 21일(토)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오매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20yrs'를 가졌다. 자개와 크리스탈을 매체로 현대미술의 언어로 확장시켜 온 정현숙 동창의 대표작이 전시되었다.

조기주(서양 79) 동창

4월 22일(화)부터 5월 18일(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이야기 한글갤러리에서 개인전 '포용: Embrace the Stains of Life'을 가졌다. 이는 서울문화재단 작품집 후원에 선정되어 발간된 같은 제목의 아트북 출판기념도 함께한 것이다.



조기주 동창

차영순(섬예 80) 동창

5월 1일부터(목) 11일(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섬유미술제(FAF)에 참여해 창세기를 참고로 빛의 신비를 금사로 수놓은 작품을 선보였다.



차영순 동창

이명선(융보 81) 동창

모교 융합보건학과 명예교수 이명선 동창이 제8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명선 동창은 2024년 12월 3일(화) 제38회 보건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명선 동창

이화원(불문 81) 동창

2월 22일(토)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신임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화원 동창은 상명대 연극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계없는예술센터



이화원 동창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류시숙(서양 82) 동창

4월 15일(화)부터 6월 28일(토)까지 영천화랑 설화마을 영천관에서 열린 'Shain Again on 금호' 전, 5월 29일(목)부터 6월 3일(화)까지 대구 박물관 이야기 전시실에서 열린 한독국제미술 교류전에 참가했다.

양옥경(영문 82) 동창

모교 명예교수이자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회장 양옥경 동창이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의 제20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양옥경 동창

이영미(서양 82) 동창

6월 4일(수)부터 15일(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격물개신' 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5월 29일(목)부터 6월 3일(화)까지 대구 박물관 이야기 전시실에서 열리는 한독국제미술교류전에 참가하였다.

채성숙(동양 82) 동창

4월 23일(수)부터 5월 4일(일)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세종뮤지엄 갤러리 2관에서 '기억의 저편'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내면의 감정과 기억의 층위를 섬세한 선과 색채로 담아낸 작품 50여 점을 선보였다.



채성숙 동창

강애란(서양 83)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강애란 동창이 4월 17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수림큐브에서 개인전 '사유하는 책, 빛의 서재: 강애란 1985-2025'를 가졌다. 수림문화재단과 유아트랩서울의 협력 전시로, 강애란 동창의 40여 년 예술 여정을 조망하는 개인전이었다.



강애란 동창

유경하(의학 84) 동창

3월 28일(금) 서울 그랜드 워커히에서 열린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ICKSH 2025)'에서 '대한혈액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유경하 동창

피상순(의학 84)·강덕희(의학 88) 동창

의과대학 동창회장 피상순 동창과 의과대학장 강덕희 동창이 '의과대학 연구기금'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하였다. 피상순 동창은 "이화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했고, 강덕희 동창은 "의과대학의 발전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피상순 동창

강덕희 동창

박인옥(서양 85) 동창

3월 13일(목)부터 4월 11일(금)까지 진주 남가람박물관 제3 전시실에서 박인옥 동창의 화업 45년을 기념하는 초대전이 열렸다. 전시는 회고전의 형식으로 꾸려졌다.



박인옥 동창

서지희(경영 85) 동창

모교 경영학부 특임교수 서지희 동창이 SK바이오팜 신입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창사 이래 최초의 여성 이사회 의장 선임이다.



서지희 동창

이정미(조소 85) 동창

5월 8일(목)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B2Project Gallery에서 이정미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정미 동창

최승애(조소 85) 동창

5월 2일(금)부터 11일(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띠갤러리에서 최승애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최승애 동창

박정란(동양 86) 동창

4월 25일(금)부터 5월 4일(일)까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시립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삶을 조립하다-모듈러 미학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박 동창은 다양한 삶의 조각들을 하나의 예술로 엮으며 새로운 조형 언어를 탐구하였다.



박정란 동창

원숙연(행정 86) 동창

모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원숙연 동창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을 연임하게 되었다. 이번 연임으로 총 6년간 준감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원숙연 동창

이숙진(커미부 86) 동창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동창이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5월 20일(화)부터 3년이다.



이숙진 동창

황미경(약학 86) 동창

약학대학 동창회장 황미경 동창이 제41대 대한약사회의 새 임원단에서 약사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약사교육연수원은 약사의 전문성 강화 및 약사면허 등록제도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황미경 동창

강선희(조소 87) 동창

5월 2일(금)부터 15일(목)까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바움아트스페



강선희 동창

이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영주(의학 88)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주 동창의 연구팀이 자궁경부 질액의 분석을 통해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 이번 연구 논문인 「자궁경부 질액의 폴리-시알릴화 글리칸은 조산의 잠재적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 인터넷판 4월호에 게재됐다.



김영주 동창

김형주(정의 88) 동창

미국 Purdue University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형주 동창이 성남시에 있는 BI Gallery에서 6월 6일(금)부터 30일(월)까지 '김형주 포스터 초대전'을 가졌다. 김형주 동창은 약 200회의 국제 전시와 포스터 디자인 컴피티션, 국제 디자인 저널, 출판물을 통해 작품을 발표해 왔으며, CIDEA, USIPB, BIPB 등 국제 행사 및 공공 기관의 자문, 큐레이팅과 아트 디렉팅을 담당해 왔다. 이번 초대전에서 김형주 동창은 100여점의 포스터 디자인 중 선정한 15점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김형주 동창

박선희(장미 88)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박선희 동창이 5월 30일(금) 모교 창립 139주년 기념식에서 20년 근속 교직원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모교 발전에 기여해 온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박선희 동창

박은애(의학 88) 동창

대한주산의학회(회장 박은애)는 5월 30일(금) 서울 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0회 춘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대한주산의학회는 임산부와 태아 및 신생아 치료와 관련해 학술적 교류가 이뤄지는 학회다.



박은애 동창

이상미(섬예 88) 동창

5월 1일(목)부터 10일(토)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섬유미술제(FAF)에 참여해 개인전을 선보였다.



이상미 동창

김정연(조소 89) 동창

4월 11일(금)부터 5월 2일(금)까지 '마망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칼리파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김정연 동창

박미향(생명 89) 동창

'제57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 예능대회'에서 사군자 부문의 장원 없는 차상을 수상하였다. 박미향 동창은 서예와 문인화 전각분야에서 30여 년간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한 예술가 활동을 하고 있다.



박미향 동창

이정원(조소 89) 동창

6월 11(수)일부터 15일(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이정원 동창의 독창적인 조각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정원 동창

황유경(생명 89) 동창

4월 21일(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황유경(주식회사 씨티엑스 대표) 동창이 과학기술



황유경 동창

진흥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 포장을 수상했다.

박경희(영문 90) 동창

삼성증권 WM부부장(부사장) 박경희 동창이 사내이사에 선임되었다. 박경희 동창은 삼성증권의 초고액 자산가 서비스를 주도했던 인물로 삼성증권 최초의 여성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경희 동창

이수정(커미부 90) 동창

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에 이수정 동창의 소설 「단역배우 김순효 씨」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3월 31일(월) 열렸으며, 상금은 5,000만 원이다.



이수정 동창

정경주(약학 90) 동창

정경주 동창이 한국병원약사회 제 28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정경주 동창은 연세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임기는 2년이다. 취임식은 2월 26일(수) 한국병원약사회관에서 열렸다.



정경주 동창

김경미(영문 91) 동창

한국씨티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전무) 김경미 동창이 부행장에 선임되었다. 김경미 동창은 글로벌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김경미 동창

김은진(동양 91) 동창

‘엑스포 시카고 2025’에서 김은진 동창의 작품 ‘신의 자리-군중들(Locations of God_Hordes of People)’이 현지 매체 뉴시티(Newcity)가 선정한 ‘주목할 다섯 작품’ 가운데 1위에 올랐다.

김지혜(도예 91) 동창

2024년 11월 21일(목)부터 2025년 5월 6일(화)까지 국립현대미술관(과천)에서 열린 ‘한국현대도자공예:영원의 지금에서 늘 새로운’ 전시에서 김지혜 동창과 이화여대 도예연구소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에는 황중구·조정현(생미 63)·강석영 모교 명예교수들의 작품도 전시되었다.



김지혜 동창

윤수미(무용 91) 동창

동덕여대 무용과 교수 윤수미 동창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한국춤협회가 4월 4일(금)부터 23일(수)까지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코튼홀 등지에서 ‘제39회 한국무용제전 <Ecology 춤, 순환의 여정>’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총 예술감독을 맡은 윤수미 동창은 생태와 예술의 공존을 주제로 한 25편의 창작 작품을 선보였다.



윤수미 동창

정성애(의학 91) 동창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성애 동창이 4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그랜드 워커힌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5)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성애 동창

김지현(법학 92) 동창

5월 28일(수) 김지현 동창이 이화법조인회 제8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이화법조인회는 회원 2,000여 명을 보유한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 모임이다. 김지현 동창은 사법연수원 26기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이다.



김지현 동창

김서영(동양 93) 동창

5월 4일(일)부터 17일(토)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Helen, A 갤러리에서 '산책, 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김서영 동창은 현재 대한민국 전통예술전승원 미술분과 이사로 활동 중이다.



김서영 동창

김원희·김정아·김지연·유소영·정지아(모두 동양 93) 동창 모교 동양화와 89학번 동창들이 함께하는 '오로라' 전시회가 6월 3일(화)부터 15일(일)까지 관훈갤러리 초대전으로 개최되었다. 각자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개척해온 다섯 동창은 30년 후 동창회를 여는 듯 모여 서로의 작업 세계를 공유하고 교감하였다.

임복희(행정 93) 동창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한 임복희 동창이 이화국제 개발협력학회 동창 초청 연사로 초빙되어 5월 15일(목), 모교 학관 108호에서 국제개발 협력시 문제되는 인권의 메시지를 영화 속 난민 인권을 통해 살펴보았다.



임복희 동창

태혜신(무용 93) 동창

4월 7일(월) (사)강릉단오제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됐다.



태혜신 동창

이상영(섬예 94) 동창

4월 1일(화)부터 13일(일)까지 인사동 웨이브 아트스페이스, 바이브 아트스페이스에서 '감각, 중첩, 연쇄'라는 주제로 기획초대전에 참여하였다. 작가들의 다양한 내적 기록들이 한 전시 공간 안에서 서로



이상영 동창

연결될 때, 개별적 감각들이 교차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 감각 너머의 세계를 안내하고 제안하는 전시였다.

한영아(국제사무 94) 동창

포스코홀딩스 상무 한영아 동창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새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심의 의결기구이다.



한영아 동창

박선영(경영 95) 동창

전 네이버V CIC 대표 박선영 동창이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디어유 미국법인 공동대표 겸 CBO로 선임되었다. 박선영 동창은 네이버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치며 글로벌 서비스 확장과 혁신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박선영 동창

이소영(서양 95) 동창

6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대구 중구에 위치한 몬스터즈크래프트비어에서 개인전 '빛나는 모든 것들 (All Things Shining)'을 가졌다.

김혜원(종음 96) 동창

3월 24일(월) 하동군립예술단의 공연을 관장하는 총괄운영자로 공식 임명되었다. 김혜원 동창은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며 하동군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김혜원 동창

송혜영(피아노 96) 동창

피아니스트이자 미국 웨더포드 대학 교수인 송혜영 동창이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 콘서트바토리 교수



송혜영 동창

엘레오노라 카푸코바와의 듀오 연주회 <두 개의 세계, 하나의 음악>, 그리고 미국 피아니스트 에이미 저스탑슨과 두 차례의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가졌다. 4월에는 웨더포드 컬리지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양윤정(동양 96) 동창

4월 1일(화)부터 30일(수)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라온숨 갤러리에서 '쉬고 바라본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양윤정 동창은 현실 속 모순된 투명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냈다.



양윤정 동창

이성경(법학 96)·이정애(사학 96) 동창

이성경·이정애 동창이 제25회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경제TV 최초의 여성 보도국장인 이성경 동창은 1999년 개국 멤버로 합류했으며, 경제 부처·산업계·청와대 등을 취재했고 <이성경 기자의 정책브리핑>, <경제의 창 W>를 기획했다. 이정애 동창은 30년간 SBS 기자로 재직했으며,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미래한국 리포트', 'SDF' 등의 행사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조명했다.



이성경 동창

이정애 동창

이지선(섬예 96) 동창

SAIC 총장 이지선 동창이 3월 24일(월)에서 4월 1일(화)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문 목적은 세 가지로 먼저 시카고예술대학 합격생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진행, 이화여대를 포함한 몇 개 대학과 향후 교류를 논의, 마지막으로 시카고 예술대학 동창들 및 후원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3월 30일(일)에 에미회 회장단 회의에 참여하였고, 3월 31일



이지선 동창

(월) 이향숙 모교 총장, 최경실 조형대학 학장, 섬유예술전공 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수(서양 99) 동창

화가 김현수 동창과 그의 아들 김기웅 작가가 2인전 '커넥티드(Connected)-세대를 잇는 그림의 연결'로 '서울아트페어 2025'에 참가하였다. '서울아트페어 2025'는 5월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최되었다.

박성희(성악 01) 동창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박성희 동창이 초록우산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초록우산은 인재양성 지원 사업 '아이리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진행했다. 박성희 동창은 2020년부터 초록우산 아이리더를 포함해 성악 인재 아동 4명을 직접 지도해 오고 있다.



박성희 동창

신지혜(섬예 02) 동창

5월 1일(목)부터 11일(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섬유미술제(FAF)에 참여해 개인전을 선보였다. 삶의 규칙 속 불규칙, 질서 속 모순이라는 양면적 구조를 '그리드'라는 구조적 은유를 통해 시각화한 다양한 작업을 발표했다.



신지혜 동창

장해림(섬예 02) 동창

장해림 동창은 활발한 작가 활동과 연구 업적으로 3월 1일(토)부터 강원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학과에 전임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장해림 동창

박설희(생미 04) 동창

LG그룹 브랜드담당 수석 박설희 동창이 5월 8일(목)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 현지에서 2025 LG구겐하임

어워드 시상식과 미디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박설희 동창은 4월 18일(금) (사)한국광고학회의 이사로 위촉되었다.



박설희 동창

우숙영(커미부 04) 동창

4월 26일(토)부터 8월 31일(일)까지 블루메미술관에서 열린 '0의 산책자-회고연습의 길'전에 참여하였다. 우숙영 동창은 134의 대표이자 KOSID한국실내건축가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민혜영(조소 05) 동창

민혜영 동창의 개인전 'Pieces of Memory'와 민혜영 동창의 부친인 고 민병익 작가를 기리는 '고 민병익 추모 개인전'이 5월 28일(수)부터 6월 2일(월)까지 갤러리 은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번 부녀 전시는 서로 다른 세대의 예술가가 '기억'과 '치유'라는 주제로 깊은 예술적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서주희 동창

서주희(피아노 05) 동창

서주희 동창은 5월 28일(수) 서울 페리지 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서주희 동창의 섬세한 연주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정유미 동창

정유미(동양 05) 동창

5월 29일(목)부터 8월 1일(금)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원미술관

에서 초대전을 연다. 정유미 동창은 동양화의 현재성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심오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안민지(회화 판화 06) 동창

6월 4일(수)부터 15일(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6-10전시실에서 열린 대구현대미술가 협회 기획 전시 '격물개신전-도전의 시작'에 참가하였다. 한편 4월 15일(화)부터 6월 28일(토)까지 영천화랑 설화마을 영천관에서 열린 'Shain Again on 금호'전을 총감독하였다.

김누리(섬예 08) 동창

5월 1일(목)부터 11일(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섬유미술제(FAF)에 참가해 개인전 'Haze Core'를 선보였다. 김누리 동창은 털실을 활용해 반복적이고 유려한 선의 흐름으로 내면의 여정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김누리 동창

조경민(섬예 08) 동창

5월 1일(목)부터 11일(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섬유미술제(FAF)에 참가해 개인전 '관계의 틀'을 선보였다. 조경민 동창은 색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긴장과 그 경계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조경민 동창

이화성악회

4월 7일(월) 서울 영등포구 영산아트홀에서 제24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소프라노 김은미(성악 02)·윤현정(성악 05)·박재은(성악 10)·김문진(성악 12)·오혜승(성악 13)·송나라(성악 15)·김혜정(성악 14)·이주리(성악 16) 동창이 피아니스트 여윤성(피아노 04)·조연주(피아노 17) 동창과 함께 비제 <카르멘>,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등 유명한 아리아들을 들려주었다.



고형지(도예 09) 동창

갤러리 박영(파주)에서 주최한 시프트10에 고형지 동창이 선정되어 '지도에서 청사진으로'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고형지 동창

김민희(섬예 10) 동창

5월 1일(목)부터 11일(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섬유미술제(FAF)에 참가해 개인전 'Intergenerational(세대 간)'을 선보였다. 작업은 '가족'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사랑과 연결의 순간들을 담았다.



김민희 동창

이은영(도예 10) 동창

3월 10일(월)부터 4월 25일(금)까지 Mo.j 갤러리(부산)에서 2인전 'Existence_traction'을 가졌다.



이은영 동창

안정신(의전원 12) 동창

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정신 동창이 5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개최된 2025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연구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안정신 동창

정수영(서양 12) 동창

5월 28일(수)부터 6월 28일(토)까지 학교재 갤러리에서 개인전 '초대 받고 싶지만, 참석하고 싶지 않아'를 가졌다. 이번 전시는 신작 '팬트리' 시리즈를 중심으로 회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였다.



정수영 동창

문혜성(작곡 14) 동창

문혜성 동창이 작곡한 창작 뮤지컬 <소란스러운 나의 서랍에서>가 4월 8일(화)부터 6월 21일(토)까지 대학로 et theatre 1에서 공연하였다. 문혜성 동창은 앞서 뮤지컬 <라흐 헤스트>로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음악상(작곡 부문)을 수상하였다.



문혜성 동창

박유동(이수민, 조소 21) 동창

3월 1일(토)부터 21일(금)까지 '만화 × 소녀 × 조각'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상업화랑 을지로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박유동 동창

박희민(조소 23) 동창

3월 10일(월)부터 16일(일)까지 '흙, 짝'이라는 주제로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박희민 동창

고 성정순(체육 49) 동창

2024년 10월 8일(화) 미국 애틀랜타에서 별세했다. 성정순 동창은 모교 체육학과 명예교수 및 대한체육회 이사, YWCA 이사,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12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다. 총동창회장으로 재임 중 기숙사 신축기금 3억 원 모교에 전달, 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금 1억 모교에 전달,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황화방(皇華坊) 오픈, 동창회관 개관 기념 강좌 개최 등을 통해 총동창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고 성정순 동창

국내 최초 VV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 스 노 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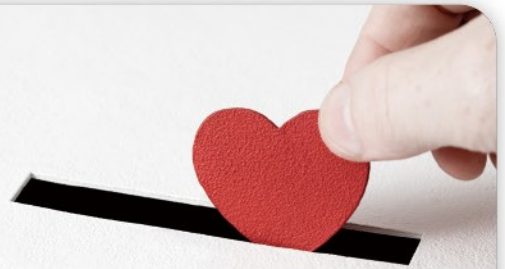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6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6만 이화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돕고, 이화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6만 이화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5년 기준 만 60세 이상(1988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5년 기준 만 60세 미만(1989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